

# 김관영 지사, 고창·부안 핵심사업 '속도전'

고창·부안 미래산업 SOC 현장점검  
 삼성스마트허브 추진 상황 확인  
 고창·부안 연결 노을대교 현장 방문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강조

전북도는 김관영 도지사가 23일 고창군과 부안군 일원의 주요 미래 산업 및 핵심 SOC 사업 현장을 방문,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행정은 ▲고창 호남권 드론 통합지원센터 ▲삼성전자 스마트 허브 단지 공사 현장 ▲고창·부안 노을대교 건설 현장 ▲부안 수전해 수소생산기지 등 도내 핵심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먼저 고창군 호남권 드론 통합지원센터 공사 현장을 찾아 구축 상황을 점검했다. 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는 국비 232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363억 원이 투입되며, 2027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해당 센터는 호남권 유일의 드론 비행시험, 교육, 자격 기능을 갖춘 통합 인프라로, 향후 AI 기반 드론 산업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김관영 도지사는 고창 신활력산업단지 내 삼성전자 스마트 허브단지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삼성전자는 181.625㎡(약 5.5만 평) 부지에 3,500여 원을 투입해 2027년 12월 준공



고창·부안 생활권 통합 "속도감 있게"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3일 고창군과 부안군을 찾아 주요 미래 산업 및 핵심 SOC 사업 현장 방문에 나선 가운데 노을대교 건설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을 목표로 스마트 허브단지를 조성 중이다.

이 단지는 AI·디지털 트윈·물류로봇·자율주행·자동 보관 및 반출 시스템(AS/RS) 등 첨단 기술이 집약된 지능형 친환경 물류시설로, 소형 상품부터 대형 상품까지 모든 물류 과정을 로봇과 AI로 완전 자동화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삼성전자의 스마트 허브단지가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

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완공 시 호남권 물류·유통 혁신의 핵심 거점이자 삼성 물류센터의 새로운 표준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김 지사는 고창군과 부안군을 연결하는 '노을대교' 건설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전개를 주문했다. 총연장 8.9km 규모 노을대교는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완공 시

이동시간이 기존 70분에서 약 10분으로 단축되어 두 지역의 생활권 통합과 물류 이동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지사는 "노을대교는 전북 서해안의 새로운 성장축을 형성하는 핵심 사업이다"며, "실시 설계 착수 등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진입한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 정읍·순창 '찾아가는 양조장' 선정 전통주 관광형 문화공간 도약



농식품부 '찾아가는 양조장' 공모 선정된 순창군의 '지란지교' 체험 <사진=전북도>

정읍시 '한영석의 발효연구소' 순창군 '친구들의 술 지란지교' 발효문화·관광 연계 체험 운영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 공모에 정읍시 '한영석의 발효연구소'와 순창군 '친구들의 술 지란지교'가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지역 양조장을 관광·체험형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전통주 문화를 알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대표 지원사업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20개소의 양조장이 신청했으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서류평가를 거쳐 8개소가 선정된 뒤, 현장평가와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5개소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전북은 2개소가 포함되며 사업 경쟁력을 입증했다.

정읍시 '한영석의 발효연구소'는 지역산 쌀과 누룩을 활용한 전통주 제조 기술과 발효문화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전통누룩 빚기, 약주·탁주 시음, 양조장 시설 견학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전통 누룩의 향과 맛을 재현하는 체험을 통해 전

통주의 과학성과 장인정신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순창군 '친구들의 술 지란지교'는 발효의 고장 순창의 지역성을 살려 한식과 어울리는 전통주 페어링 시음, 나만의 증류주 만들기, 국악 공연이 어우러진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청년 양조인과 지역 예술인이 협업해 발효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통주 체험 공간을 선보일 예정이다.

양조장들은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길안내 간판과 포토존 설치, 전시시설 개선, 홍보영상·브로슈어 제작 등을 진행해 방문객이 체험과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도는 이번 선정으로 도내 양조장이 전통주 산업과 지역 관광 활성화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찾아가는 양조장 사업은 전북 전통주의 우수성을 알리고 관광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앞으로 전통주 인지도 향상과 지역 농산물 사용 확대 등 다각도의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 윤준병, 해양폐기물 관리 거버넌스 구축법 대표 발의

다층 협력 관리체계 구조 전환  
 기본계획 5년주기 재검토 의무화  
 민간 참여·지방위원회 근거 마련



윤준병 의원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양폐기물 관리에 있어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 및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통합적인 해양환경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행 해양폐기물 관리체계가 기본계획 재검토 기준이 불명확하고 강제성이 부족해 변화하는 해양환경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가 정부 중심으로 구성돼 민간 참여가 부족하고, 실제 수거·관리 주체인 지방과의 연계도 미흡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에 윤 의원은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 수립 후 5년마다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과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이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위원 중 민간 위촉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지방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거버넌스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전문기관을 해양폐기물 관리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윤 의원은 "다층적 거버넌스를 통해 우리 바다를 더욱 체계적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목기자



#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 제63회 법의 날

전북지방변호사회는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나의 변호사』 서비스 개시

고민을 해결해줄 변호사를 찾으십니까?

나의 변호사(www.klaw.or.kr)를 클릭해주세요

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나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법률플랫폼으로 공신력 있는 변호사 정보와 업무사례 등을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하여 사건 의뢰를 원하는 국민 누구나 나의 변호사 서비스 검색을 통하여 자신의 사건에 적합한 법률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자 준비한 서비스입니다.

제 1 부 회 장 이 삼 일

제 2 부 회 장 이 민 호

- 총무상임이사 김 용 빈
- 재무상임이사 이 진
- 공보상임이사 홍 민 호
- 인권상임이사 우 아 립
- 교육상임이사 강 호 석
- 법제상임이사 나 영 주
- 여성상임이사 진 태 희
- 군산상임이사 유 경 재
- 정읍상임이사 유 태
- 익산상임이사 최 환 석

- 이 사 윤 석 주
- 이 사 최 경 섭
- 이 사 추 길 환
- 이 사 김 영 호
- 이 사 김 대 호
- 이 사 박 금 태
- 이 사 김 완 수
- 이 사 유 주 환
- 이 사 이 보 향
- 이 사 광 호 영
- 이 사 박 기 봉
- 이 사 김 용 선
- 이 사 장 충 석
- 이 사 최 혜 옥
- 이 사 박 수 연

- 이 사 강 원 표
- 이 사 주 우 리
- 이 사 박 심 미
- 이 사 서 한 샘
- 이 사 최 경 환
- 이 사 송 도 희
- 이 사 김 민 규
- 이 사 윤 은 주
- 이 사 김 성 범
- 이 사 최 덕 문
- 이 사 하 현 환
- 이 사 홍 호 성
- 감 사 광 영 수
- 감 사 김 진



회장 김학수

# 전북연구원 “새만금, 하드웨어 넘어 소프트웨어로” 제언

초기 확장 넘어 '질적 전환' 필요  
새만금산단 'LEAPS' 5대 과제  
특별법 개정·컨트롤타워 등 제시  
“기업 성공 환경 조성이 핵심”

전북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이슈브리핑을 통해 새만금 국가산단이 부지 제공 중심의 하드웨어에서 벗어나 기업의 성장과 재투자 등을 뒷받침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기업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3일 브리핑에 따르면 새만금은 이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현대차 투자유치 등을 기반으로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며 초기 확장 단계를 지나 '클러스터형 성장'에 진입을 앞두고 있다며, 이에 맞

는 정책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지훈 박사는 “판교, 연구개발특구 등 국내 혁신클러스터는 산학연 혁신생태계 구축과 소프트웨어적 기업지원 역량강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새만금을 지속 가능한 미래형 산업단지

로 도약시키기 위한 5대 핵심 과제, 일명 'LEAPS for 새만금산단'을 제시했다. 첫째, 기업지원을 위한 새만금특별법의 개정이다. 수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지원에 대한 항목은 여전히 부족하다

며 식품산업진흥법, 연구개발특구법 등을 뛰어넘는 강력한 소프트웨어적 기업지원이 가능하도록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를 새만금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둘째, 소프트웨어 기업지원을 위한 전담 파트너의 확보이다. 한국식품산업클

러스터진흥원, 연구개발특구본부 등의 사례처럼, 부처별로 유차한 국책사업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하고 입주기업 서비스를 일원화할 '전담 컨트롤타워'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셋째, 산·학·연 융합형 기업생태계 조성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산학연협의체 사례와 같이 동종·이종 업종 간의 유기적 소통과 현장 중심의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새로운 비즈니스가 자생적으로 창출되는 융합형 공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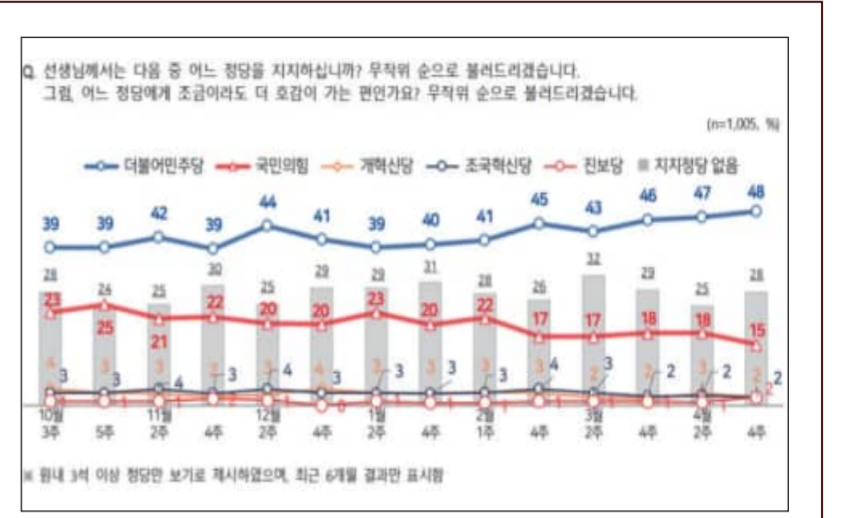
탈바꿈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넷째, 체감형 소프트웨어 중심 기업지원 발굴이다. 판교와 같이 입주기업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메가특구), 인재(융합연구원), 재정(창업/세제), 금융(성장펀드), 혁신(자율R&D) 등 이른바 '새만금형 기업성

장 5종 패키지'를 적기에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다섯째, 하드웨어 기반의 미래산업단지를 위한 실험실로 고도화이다. 5·6공구 국내 최초로 지정된 스마트그린 국가시험산단을 3, 7, 8공구로 확대하고, AX/RE100실증 등을 추진해 일본 도요타 우븐시티처럼 새만금을 산업단지형 신기술 실증 허브로 고도화시키자는 주장이다.

이지훈 박사는 “새만금이 글로벌 산업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업이 들어오고 싶은 땅을 만드는 것에서, 들어온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번 제안이 새만금 국가산단의 질적 성장을 이끄는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사진=NBS>

## NBS “국민의힘 지지율 15%”...역대 최하치

민주48%·국힘 15% 격차 확대  
TK 민주우세...보수 지형 '흔들'  
“여당 힘 실어야” 58%

[NBS]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역대 최하치인 15%까지 하락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실적없는 방미와 미국에서의 '인생 샷' 논란 등으로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

23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시행한 전국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전국지표조사(NBS)를 실시한 결과,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8%, 국민의힘 15%, 조국혁신당 2%, 개혁신당 2%, 진보당 2% 순이었다.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전보다 1%포인트 올랐으나 국민의힘은 3%포인트 추가 하락하며 조사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 지역에서 민주당에게 뒤졌다. 특히 보수지방 대우호는 29%였다.

정당별 호감도는 더불어민주당

58%, 국민의힘 20%,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14%, 진보당 21%로 조사되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호감도는 2025년 10월 5주차 조사에 비해 상승한 반면, 국민의힘에 대한 호감도는 하락하였으며, 그 외 정당의 경우에는 큰 변동은 없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2주 전과 동일한 69%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부정평가의 21%, 무응답은 9%였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과 중도층에서는 긍정 평가가 각 91%, 73%로 높은 반면, 보수층에서는 긍정 평가와 부정평가가 엇비슷했다.

또한 제9회 6.3지방선거에서 '현 정부의 국정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58%,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30%, 모름/무응답 12%였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이다. 응답률은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김영목기자

## 전북도, 여름 앞두고 축사 전기화재 예방 강화

양돈농가대상 전기안전 수칙 교육  
냉방기 과부하 화재 위험 대비  
4억 투입 190농가 점검·설비 지원

전북도는 여름철을 앞두고 축사 내 냉방기 사용 증가에 따른 전기화재 예방을 위해 23일 농업인회관에서 시군 양돈농가 지방장 20여 명을 대상으로 전기안전 수칙 및 화재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냉방기·환풍기 등 전기설비 가동 증가로 과부하 및 노후 전선에 따른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여름철에 대비해 마련된 것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본부와 협력해 진행됐다.

특히 전기 사용량 증가와 먼지·습기 등으로 설비 관리가 취약해지는 축사

환경을 고려해 전기제품 올바른 사용법, 과부하 방지, 노후 배선 점검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핵심 안전관리 사항을 중심으로 실무 교육이 이뤄졌다.

한편 도는 양돈·양계 농가를 대상으로 전기안전점검과 설비 개선을 연계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총 4억3000만원을 투입해 190농가를 대상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함께 열화상 진단, 분전반 클리닝 등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며 보수가 필요한 시설은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농가당 최대 400만원 범위 내에서 설비 보강을 지원해 전기적 화재 요인을 사전에 줄일 계획이다.

민선시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축사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피



<사진=전북도>

해 규모가 매우 큰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기안전점검을 중심으로 사전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전주기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 이원택 “지방선거 압승으로 이재명 정부 성공 뒷받침”

전북도지사 후보로 첫 공식 후보  
민주 단재장 후보 합동 간담회 참석  
“새만금 미래산업 전초기지 세울 것”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23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둬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자 합동 기자회견단'에 참석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은

민주당의 변함없는 핵심 가치”라며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또한 “새만금 SOC 조기 완결과 피지컬AI 수도 조성, 케이컬처와 케이푸드 육성, 농생명식품 바이오 분야 특화 등 전북 발전에 적극 관심을 가져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간담회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원팀(One-Team)'으로 뭉쳐 민생 회복과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지방선거 필승의



지를 다지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간담회에는 이 후보를 비롯해 정영오 서울시장 후보,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 등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참석해 민주당 원팀의 위용을 과시했다.

이 후보는 “지금 도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화려한 수사가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 잘하고 유능한 도지사”라며 “위축된 민생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들의 지갑을 채우는 체감경제 실현을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의 미래 비전과 관련해 “지방소멸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북의 기초 경제력(펀디멘탈)을 탄탄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 핵심 성장 동력인 새만금을 신속하게 완성해 대한민국 미래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최전방 전초기지로 우뚝 세우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목기자

JBT 광고 문의 063-282-9601 구독 문의 063-282-9603

| 호흡기 건강 캠페인 |

# 미세먼지 스마트한 대처법

1. 되도록 창문을 열지 않고 차단하기
2. 외출시 모자, 안경 마스크 착용하기
3. 하루 8잔 이상 수시로 물 마시기
4. 손 씻기, 세안, 양치 꼼꼼히 하기
5. 중금속 배출해주는 미역, 과일, 채소 섭취하기

# 전주시 '도심융합특구' 공모 대응 추진

## 도-전주시공모대응 TF팀 가동 6~7월 국토교통부 신청 예정

전주시가 정부 도심융합특구 공모 신청을 통해 산업·주거·문화 기능을 결합한 혁신 거점을 구축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시는 오는 6~7월 예상되는 국토교통부 공모계획에 따라 도심융합특구 공모 신청 위한 행정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도심융합특구'란 지방 대도시 도심에 기업과 인재를 모일 수 있도록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 공간 조성이다.

기존의 외곽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삶과 일, 즐거움이 한곳에서 이뤄지는 '직·주·락(職·住·樂)' 모델을 지향하며 규제 완화와 과격적인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국가 전략 사업이다.

시의 도심융합특구 지정 공모 대응은 지난해부터 이어온 국토교통부 정책 동향 분석과 내부 검토의 결과물이다.

시는 올해 초부터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전북도와 유관기관 등과 함께 수차례 정책 회의를 거쳐 전주만의 차별화된 전략 모델을 구축해왔다. 특히 지난 2월 도심융합특구 관련 브리핑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계획을 구체화했다.

시와 전북도는 지난 13일에는 특구 지정 공모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심융합특구 지정 추진 TF팀'(총 20~25명)을 구성기도 했다.

TF팀은 건설교통국장을 팀장으로 △총괄대응반 △사업추진반 △전략수립지원반 △기획분석반 등 4개 반으로 운영된다. 전북연구원과 전주시정연구원, LH 전북본부 등이 참여해 공모 전략 모색과 타당성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의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2026~2035)'에 따라 특구 지정 대상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까지 확대되면서 전주시가 지정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현재 호남권의 유력한 후보지로 주목

받고 있다.

시는 앞으로 국가균형성장 추진 전략인 '5극 3특' 체제의 핵심 축인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핵심 거점으로서 탄소소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과 피지컬AI 국가 핵심거점이라는 '이중거점' 지위를 적극 활용해 전북도와 공동구축한 TF팀의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먹거리 전략산업들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특구 내 기술 혁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하는 전북형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의 비약적인 도약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정소민 기자

## 전북대병원 고객만족도 최고 등급 획득

### 25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전 영역 최고 등급인 S등급 획득

전북대학교병원이 재정경제부 주관 2025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 영역 최고 등급 S등급을 획득했다.

최고 등급 S등급 획득을 통해 전북대병원은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역량에 다시 한번 입증했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되는 평가다.

특히 국민 참여 결과로서 이에 따른 공신력이 높은 지표이다.

2025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재정경제부 주관 △공기업 20개 △중정부기관 54개 △기타공공기관 112개 등 총 18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에서 전북대병원은 외래(검진포함)·입원·교육·연구 등 전 영역에서 최고 등급 S등급을 획득하며 의료 및 교육 서비스 전반에 내원객과 국민으로부터 높은 신뢰와 만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대병원은 그동안 권역책임 의료기관으로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조직 전반의 체계적 혁신 추진을 지속해왔다.

따라서 환자경험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진료 프로세스를 전면 개선하고 원내 편의시설을 확장하는 등 환자 중심 의료환경 구축에 힘써왔다.

특히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고객경험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고객 중심 문화를 조직 전반에 확산시켰다.

/김영태 기자

# "주말에 전주시 이팝나무 꽃길 즐겨요"

## 전주 이팝나무 축제 개최

전주시 팔복동 '2026 이팝나무 꽃 축제'가 다가온다.

시는 이팝나무 축제 기간 시민과 관광객들의 축제 편의 제공을 위한 전주시내버스 운행 증가 추진 계획을 밝혔다.

'2026 이팝나무 꽃 축제'는 오는 25일

~26일, 5월 1일~3일 주말·공휴일 중심으로 진행된다.

앞서 시는 4월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환경강변 일대 특별노선을 운영하는 등 계절별 관광수요에 대응한 교통 지원을 추진했다.

'2026 이팝나무 꽃 축제' 기간 중 시는 방문객이 몰리는 시기 주말·공휴일 버스

운행을 조정해 5개 노선에 버스 7대를 추가하는 등 교통 지원을 강화한다.

5개 노선은 △101번 △103-1번 △103-2번 △337번 △383번 △385번 △401번 △402번 △403번 △420번 △644번 △684번 △1001번 △1002번 등이다.

노선은 축제 장소인 팔복예술공장 인근 정류장을 중심으로 운행된다.

시는 시내버스 행선지 표출 및 정류장 안내 음성 강화와 함께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한 교통 안내를 병행해 축제장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시는 행사 특성과 시기별 교통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대중교통 운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 전북소방 긴급환자 신속병원선정 ETC 체계 운영

### 자체 고안 긴급 3자통화 방식

전북소방본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신속 병원선정 위한 ETC(Emergency Three-way Call)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ETC 기반은 전북소방본부가 자체 고안한 병원선정체계다.

ETC 운영은 구급대와 구급상황관리센터, 의료기관을 동시에 연결하는 긴급 3자 통화 방식이다.

따라서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에서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의료기관 수용 가능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ETC 운영체계는 심정지나 중증의상과 같은 신속한 병원선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시스템 활용이 어려운

긴급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보완 수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북소방은 응급환자 이송체계 시범사업과 연계해 ETC 체계를 운영하며 구급상황관리센터가 병원선정 과정에 직접 개입해 의료기관과의 실시간 공동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전북소방은 ETC 운영을 통해 환자 위한 병원선정 최소화과 구급대원의 응급환자 대응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한편 ETC 체계는 지난 3월 1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ETC 체계는 이전 스마트시스템 구현 방식에서 구급상황관리센터(구급대 컨트롤)를 통한 환자 정보를 병원에 전달하는 공정시스템 방식이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민 여름철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 태풍·호우·폭염 등 자연 재난 인명피해 근절 최우선 목표 5월 15일부터 대책기간 운영

전주시가 여름철 태풍과 호우, 폭염 등 자연 재난 대비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시의 여름철 재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은 △국지성 집중호우 △장기 폭염 등이 반복적인 양상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해 인명피해 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관련해 기상청에 따르면 2026년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 수준이겠지만 대기불안정 국지성 집중호우 가능성을 높이 전망했다.

또한 평년보다 높은 기온에 의한 폭염 발생과 지속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시는 오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 중심 대응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대책 중점은 △현장 중심 대응체계 강화 △인명피해 우려지역 집중 관리 △상

습침수지역 방재시설 정비 △취약계층 보호 및 주민대피 체계 구축 △폭염 대응 체계 강화 등이다.

특히 산사태·하천·지하공간 등 114개 소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지하차도·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시설 통계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세월교와 둔치주차장에 대한 사전 통제 강화와 상습 침수지역 배수시설 점검과 준설도 추진하는 등 인명사고 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여기에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 위한

국장급 상황 책임제 운영과 각 동장에게는 위험 시 주민 대피 명령권을 부여하는 현장 중심 대응체계에도 강화한다.

시는 고령자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주민대피지원단을 운영하고, 주민 참여 대피훈련과 행동 요령 교육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기상특보 발령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해 13개 협업부서와 유관기관이 함께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전·환경' 정비

## 쾌적한 유통 환경 조성

전주시는 23일 도매시장 전반에 대한 환경정비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환경정비는 시장 내·외부 위생 및 안전 전 취약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추진됐다.

환경정비는 도매시장 전반에 걸쳐 대청소 및 시설점검을 병행해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경매장 바닥 청소 및 적재물 정리 △중도매인 점포 내·외부 정리 등 △공중화장실 청소 △주차장 부지 및 주변 일반쓰레기 수거 △농산물 잔재물처리장 주변 환경정비 등 시장 전반에 대한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특히 경매장 주변과 저장고 인근, 활어동 뒤편, 선별처리장 주변 등 평소 관리가 필요한 구역을 중심으로도 정비가 이

뤄졌다.

앞서 시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위한 △건축물 벽체 균열 및 누수 여부 △전기·소방·가스·기계 시설물 안전 상태 △지붕 등 주요 구조부 점검 △배수시설 및 집수정 관리 상태 △화재 위험 요인 및 시설물 유지관리 상태 △공중화장실 청결 및 편의시설 관리 실태 등이다.

시는 이번 환경정비와 안전점검을 통

해 봄철 도매시장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도매시장 법인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운영 개선과 시설 관리 방안, 시장 활성화 대책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등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소통도 이어오고 있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 친환경 수소버스 안전 환경조성

## 정비인력 직무역량 강화교육

전주시가 친환경 수소버스 대중교통 안전 환경 조성에 전문성을 강화한다.

이에 시는 지난 21일 전북현대상용서비스 교육장에서 전주시지역 운수사 정비직 직원 20여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버스 정비인력 직무(안전)역량 강화교육'를 실시했다.

강화교육은 내연기관 중심에서 친환경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정비 현장의 기술 격차를 해소 및 고전압 시스템 취

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수소버스 제작사인 현대자동차 전문 강사가 직접 참여해 이론과 실차 기반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수소연료전지 스택 등 핵심 부품 정비 실무 △고전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차단 절차 △응급 조치 숙달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교육은 기존 내연기관 버스와 구조가 다른 친환경 버스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실차 교육이 이뤄져 현장 정비사들의 대응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됐다.

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제작사·지자체·운수사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정비 인력의 실무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수소버스 운행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7~8월에는 유관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와 9월에는 정비직과 운전직을 아우르는 2차 역량 강화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 전북경찰 "행동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지켜요"

전북경찰청은 지난 2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2개월간 2026년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중점 추진했다.

결과로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20건으로 전년 동기기간 36건 발생 대비 44.4% 감소했다.

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목표로 현장에서 즉시 "행동"하고 도민의 안전을 지켜 도민의 "신뢰"를 구하고자 현장 중심 활동을 추진했다.

특히 어린이 활동이 많은 등·하교시간대를 중심으로 도내 초등학교 주변 등 총 901개소에 교통경찰과 녹색어머니, 모범운전자 등 교통지도인력을 집중 배치해 어린이 보행지도 및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589건 단속해 도민이 현장에서 어린이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행동하는 경찰상을 보여줬다.

또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총 45회 진행해 2398명을 대상으로 안전하게 횡단보도 건너는 방법, 자전거 타는 법 등을 교육했다.

/정소민 기자



## 예수병원 김병선 과장 '존경받는 병원인상' 영예

전주예수병원 소화기내과 김병선 과장이 '제16회 종근당 존경받는 병원인상'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종근당 존경받는 병원인상'은 병원계 발전과 환자 중심의 의료 문화 창달에 헌신한 참된 의료인을 발굴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김병선 과장은 소화기내과 전문의로서 첨단도 질환 환자들을 진료하며, 고난도 시술인 ERCP(내시경 역행 체담관 조영술)를 통해 지역 내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등 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과장은 예수병원 선교과장, 홍보

실장, 국제의료협력단(MCI) 대표를 맡아 '사람을 세우고 세상을 치유하는' 병원의 설립 소명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왔다.

그는 특히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 회장직을 역임하며 대한민국 의료선교의 글로벌 역량 강화와 연합을 이끄는 등 국경을 초월한 헌신을 보여준 점이 이번 수상의 빛을 더했다.

김 과장은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지만, 동시에 적지 않은 부담과 책임도 함께 느낀다"며 "이번 수상을 더 성실하고 겸손하게 환자를 섬기려는 격려로 알고, 앞으로도 '우보천리(牛步千里)'의 마음으로 작은 변화를 꾸준히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정소민 기자

## 전주시청 배드민턴팀 전국대회 제패

### 연맹회장기 남자복식 정상 '쾌거'

전주시청 직강운동경기부 배드민턴팀이 '2026 연맹회장기 전국실업대학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시 배드민턴 전국대회 우승은 창단 1년만의 성과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

'2026 연맹회장기 전국실업대학배드

민턴선수권대회'는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경남 밀양시 배드민턴경기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김용현 감독과 선수 7명으로 구성된 전주시청 배드민턴팀이 대회에 참가해 안정적인 경기력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대회 우승을 거머쥐었다.

특히 이번 전국대회 우승은 배드민턴

팀이 창단 초기 단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훈련과 선수 간 호흡을 바탕으로 이뤄낸 결과물이다.

김용현 감독은 "이번 대회를 통해 선수들의 경기력이 한층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선수들이 준비해 온 과정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꾸준한 훈련을 통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 전북TP, 지역혁신·초광역권 선도기업 육성

## R&D 기획 지원·제품 고급화 전망위 지원 내달 8일까지 접수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가 2026년 지역혁신 선도기업과 초광역권 선도기업에 대한 지원에 착수한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북도가 지원하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하는 '2026년 전북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추진계획 일환으로 진행된다. 사전 지정된 지역혁신 선도기업 4개사와 초광역권 선도기업 2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혁신 선도기업은 기업당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초광역권 선도기업은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북도와 전북TP는 지역혁신 선도기

업의 기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협업 R&D 후속 과제 및 신규 R&D 공모를 위한 과제 기획과 핵심 인증·특허 취득을 직접 지원한다. 또 시제품 제작, 제품 고도화, 글로벌 마케팅과 ESG 경영 컨설팅 프로그램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구성할 수 있다. 초광역권 선도기업에는 1억원 규모의 '혁신성장 바우처'를 제공하며, 기술협력형과 거래협력형 중 세부 프로그램을 바우처 형식으로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도 경계를 넘는 공급망 구축과 협업 역량 고도화를 지향하는 '팔방미인형' 핵심 앵커기업을 키워낼 계획이다. 지난해 지원을 받은 아진전자부품(주)은 공정 자동화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매출의 동반 성장을 실현했으며 특히 차량용 소프트웨어 국제표준인 'ASPICE' 인증을 획득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다. 대륜산업(주) 역시 농업용 유동팬 고도화와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 동남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오는 지난 22일부터 5월 8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지



출을 위한 독보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다. <사진=전북테크노파크>

역특화산업육성 기업지원관리시스템(RMS, <https://smtech.go.kr/region/rms>)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사업 참여 희망 기업은 오는 지난 22일부터 5월 8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지

/정소민 기자

## 전북경진원 '예비창업자 모집'

5월 15일까지 '누구나'

로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2026년 3월 26일 기준)로부터 선정일까지 사업자 등록이 없는 예비 창업자로, 별도의 사업계획서 없이 아이디어 신청서만으로 '모두의 창업' 홈페이지([www.modoo.or.kr](http://www.modoo.or.kr))를 통해 전국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경진원은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로컬창업타운' 공모 사업과 연계해 지역 기반 창업자들에게 더욱 촘촘한 지원 체계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내 개소를 목표로 하는 로컬창업타운은 공유오피스와 코워킹스페이스, 교육장, 회의실 등으로 구성돼, 모두의 창업을 통해 발굴된 창업자들의 거점 공간이 될 예정이다.

'모두의 창업' 로컬 분야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푸드, 문화, 관광, 패션, 뷰티 등 생활 속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하며, 선발 인원의 약 90%를 비수도권에 배정해 지방 창업 활성화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이디어가 선정된 참가자 1000명에게는 창업활동자금 200만원이 지급되며, 창업 교육, 맞춤형 멘토링, 보육공간 제공, 투자 연계 등도 함께 이뤄진다.

이후 단계별 평가를 거쳐 최대 1억 3천만원 사업화 지원금을 추가

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방조달청은 김제시를 포함한 전북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 길잡이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3일 김향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전북지역 관공 아스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수요기관 관계자와 전북지역 아스콘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아스콘 민관공동수급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등 대외 여건 변화로 인해 중요 공사현장에 납품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현장의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 공급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에서는 시급한 지역행사 연계도 등을 포함한 국민 안전·민생과 직결되는 시설 복구현장을 중요 공사현장으로 선정해 아스콘 물량이 긴급한 현장에 최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향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아스콘은 도로 건설 및 유지에 핵심적인 자재인 만큼 안정적인 수급과 철저한 품질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의회를 통해 시장 변동성 확대 상황에서도 전북지역 관공 아스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 전북지방조달청 '공공조달 길잡이' 운영

김제시 소재 기업 대상

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방조달청은 김제시를 포함한 전북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 길잡이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3일 김향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전북지역 관공 아스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수요기관 관계자와 전북지역 아스콘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아스콘 민관공동수급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등 대외 여건 변화로 인해 중요 공사현장에 납품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현장의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 공급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에서는 시급한 지역행사 연계도 등을 포함한 국민 안전·민생과 직결되는 시설 복구현장을 중요 공사현장으로 선정해 아스콘 물량이 긴급한 현장에 최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향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아스콘은 도로 건설 및 유지에 핵심적인 자재인 만큼 안정적인 수급과 철저한 품질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의회를 통해 시장 변동성 확대 상황에서도 전북지역 관공 아스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이날 교육은 공공조달시장 개요를 비롯해 나라장터 이용 방법, 조달업체 등록 절차, 다수공급계약(MAS), 우수조달 물품 및 혁신제품 제도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이 다뤄졌다. 이어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1:1 컨설팅도 진행돼 각 기업의 준비 수준과 제품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입 전략이 제시됐다. 김향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공공조달 길잡이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기업이 실제로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지원하는 현장형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의 공공관

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방조달청은 김제시를 포함한 전북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 길잡이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3일 김향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전북지역 관공 아스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수요기관 관계자와 전북지역 아스콘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아스콘 민관공동수급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등 대외 여건 변화로 인해 중요 공사현장에 납품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현장의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 공급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에서는 시급한 지역행사 연계도 등을 포함한 국민 안전·민생과 직결되는 시설 복구현장을 중요 공사현장으로 선정해 아스콘 물량이 긴급한 현장에 최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향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아스콘은 도로 건설 및 유지에 핵심적인 자재인 만큼 안정적인 수급과 철저한 품질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의회를 통해 시장 변동성 확대 상황에서도 전북지역 관공 아스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이날 교육은 공공조달시장 개요를 비롯해 나라장터 이용 방법, 조달업체 등록 절차, 다수공급계약(MAS), 우수조달 물품 및 혁신제품 제도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이 다뤄졌다. 이어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1:1 컨설팅도 진행돼 각 기업의 준비 수준과 제품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입 전략이 제시됐다. 김향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공공조달 길잡이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기업이 실제로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지원하는 현장형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의 공공관

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방조달청은 김제시를 포함한 전북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 길잡이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3일 김향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전북지역 관공 아스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수요기관 관계자와 전북지역 아스콘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아스콘 민관공동수급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등 대외 여건 변화로 인해 중요 공사현장에 납품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현장의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 공급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에서는 시급한 지역행사 연계도 등을 포함한 국민 안전·민생과 직결되는 시설 복구현장을 중요 공사현장으로 선정해 아스콘 물량이 긴급한 현장에 최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향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아스콘은 도로 건설 및 유지에 핵심적인 자재인 만큼 안정적인 수급과 철저한 품질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의회를 통해 시장 변동성 확대 상황에서도 전북지역 관공 아스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이날 교육은 공공조달시장 개요를 비롯해 나라장터 이용 방법, 조달업체 등록 절차, 다수공급계약(MAS), 우수조달 물품 및 혁신제품 제도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이 다뤄졌다. 이어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1:1 컨설팅도 진행돼 각 기업의 준비 수준과 제품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입 전략이 제시됐다. 김향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공공조달 길잡이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기업이 실제로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지원하는 현장형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의 공공관

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방조달청은 김제시를 포함한 전북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 길잡이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3일 김향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전북지역 관공 아스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수요기관 관계자와 전북지역 아스콘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아스콘 민관공동수급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등 대외 여건 변화로 인해 중요 공사현장에 납품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현장의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 공급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에서는 시급한 지역행사 연계도 등을 포함한 국민 안전·민생과 직결되는 시설 복구현장을 중요 공사현장으로 선정해 아스콘 물량이 긴급한 현장에 최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향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아스콘은 도로 건설 및 유지에 핵심적인 자재인 만큼 안정적인 수급과 철저한 품질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의회를 통해 시장 변동성 확대 상황에서도 전북지역 관공 아스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이날 교육은 공공조달시장 개요를 비롯해 나라장터 이용 방법, 조달업체 등록 절차, 다수공급계약(MAS), 우수조달 물품 및 혁신제품 제도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이 다뤄졌다. 이어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1:1 컨설팅도 진행돼 각 기업의 준비 수준과 제품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진입 전략이 제시됐다. 김향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공공조달 길잡이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기업이 실제로 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지원하는 현장형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의 공공관

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방조달청은 김제시를 포함한 전북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 길잡이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3일 김향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전북지역 관공 아스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수요기관 관계자와 전북지역 아스콘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아스콘 민관공동수급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등 대외 여건 변화로 인해 중요 공사현장에 납품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현장의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 공급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에서는 시급한 지역행사 연계도 등을 포함한 국민 안전·민생과 직결되는 시설 복구현장을 중요 공사현장으로 선정해 아스콘 물량이 긴급한 현장에 최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향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아스콘은 도로 건설 및 유지에 핵심적인 자재인 만큼 안정적인 수급과 철저한 품질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의회를 통해 시장 변동성 확대 상황에서도 전북지역 관공 아스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 전기안전공사, 감사협의회 통해 협력체계 구축

### 교차감사·모범사례 공유·적극행정 지원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가 안전을 책임지는 주요 공공기관 감사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전기안전공사(상임감사 허정환)는 지난 22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제1차 안전공공기관 감사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안전 관련 내부통제 체계 강화와 사회적 책무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를 비롯한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6개 기관 감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안전경영 강화를 위한 감사기구 역할을 논의했다. 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안전 분야 감사기법 공유 △교차감사를 통한 객관성 확보 △우수·모범사례 공유 △적극행정 지원과 길잡이 근절 문화 확산 등이 포함됐다. 허정환 상임감사는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며, 이를 지키

기 위해 감사기구 간 장벽을 허무는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의회가 국민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실질적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협의회는 향후 정기회의를 통해 협력 과제를 구체화하고, 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 농진청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하세요!"

###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체감형 성과 창출 기대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농업·농촌 분야 비정규직인 관행과 제도 또는 고착화된 불합·편법 행위 근절을 위해 '국민 제안창구'를 개설해 운영할 방침이다. '국민제안창구' 운영 핵심에는 현장 목소리 반영한 비정규직 관행·제도 개

선 등이다. 관련해 제안 공모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된다. 특히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투명·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누구나 농촌진흥청 누리집(<https://www.rda.go.kr>)

게시판(국민 소통 →국민의 소리→비정규직의 정상화(국민제안))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아울러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접수된 제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여기에 농촌진흥청은 국민 제안과 함께 내부 실무 공직자 아이디어, 각종 위원회(케이(KI)-농업과학기술협의회 등) 등의 다양한 창구를 통해 의견을 발굴

할 방침이다. 제안 의견은 분야별 검토를 거쳐 1차 선별해 합동 토론회 최종 추진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촌진흥청은 내외부 전문가 '경청과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미래 농업육성 △현장 문제 해결 △활력 있는 농촌 3개 분야를 운영한다. /김영태 기자

## '전주상공회의소-중장년내일센터' 고용 활성화 협력

### 고용지원사업 간 연계... 지역 고용 창출 확대

전주상공회의소(회장 김정태)는 23일 노사발전재단 전북중장년내일센터(센터장 이명숙)와 전북지역 고용 활성화 및 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년·중장년·시니어를 아우르는 고용지원사업 간 연계를 통해 지역 내 고용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고용지원사업 공동 홍보 및 참여기업 확대 △설명회 등 고용 활성화 사업 공동 추진 △고용 관련 정보 및 네트워크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

다. 김정태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 연령대 구직자에게 실효성 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청년(15세~34세) 취업 지원을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령층(60세 이상) 채용 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시니어 인턴십 사업의 운영기관이다. 또 전북중장년내일센터는 생애경력설계, 전직 및 재취업 지원 등 중장년층에 특화된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각각 추진해 온 고용지원사업이 유기적



으로 연계됨으로써, 전북지역 고용 활성화는 물론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전주상공회의소>

/정소민 기자

## 신협 '상반기 신입직원 전국 공동채용'

### 약 35명 규모... 내달 8일까지 접수

신협중앙회(회장 고영철, 이하 신협)는 2026년 상반기 신협 신입직원 공동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전국 19개 회원조합에서 약 35명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협 공동채용은 채용 수요가 있는 회원조합의 신청을 받아 중앙회가 채용공고부터 서류 및 필기전형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5년 도입 이후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전국 단위의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채용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순으로 진행된다. 모집 조합 소재 지역 인재를 우대하며, 연령·학력·전공에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서는 23일부터 내달 8일 오후 6시까지 신협 공동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내달 26일 발표되며, 필기전형은 내달 30일 실시된다. 이후 6월 11일부터 회원조합별 면접전

형을 거쳐 6월 23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진목 신협중앙회 경영지원본부장은 "신협 공동채용은 학력과 전공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기회를 제공하는 열린 채용"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신협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정소민 기자

## 농식품부·aT '거래고객 대상 팸투어' 운영

구매자 신뢰 향상

농산물의 품질을 눈으로 확인했다. 참여한 구매자들은 현장에서 산지를 둘러본 후 "품질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현대화된 선별 시설과 철저한 검수 과정을 확인해 온라인에서도 안심하게 거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이번 방문을 통해 우수 산지를 중심으로 구매 물량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T는 지난해 4회 운영된 팸투어 프로그램을 올해는 11월까지 20회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며, 비대면 거래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비자들과 산지 간의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aT 김창국 부사장은 "산지 팸투어는 산지의 우수한 역량을 구매자들에게 증명하고 온라인 거래의 문턱을 낮추는 중요한 첫걸음이 됐다"라며, "전국의 유능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건강한 디지털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농산물의 품질을 눈으로 확인했다. 참여한 구매자들은 현장에서 산지를 둘러본 후 "품질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현대화된 선별 시설과 철저한 검수 과정을 확인해 온라인에서도 안심하게 거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이번 방문을 통해 우수 산지를 중심으로 구매 물량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T는 지난해 4회 운영된 팸투어 프로그램을 올해는 11월까지 20회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며, 비대면 거래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비자들과 산지 간의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aT 김창국 부사장은 "산지 팸투어는 산지의 우수한 역량을 구매자들에게 증명하고 온라인 거래의 문턱을 낮추는 중요한 첫걸음이 됐다"라며, "전국의 유능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건강한 디지털 유통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정소민 기자

농산물의 품질을 눈으로 확인했다. 참여한 구매자들은 현장에서 산지를 둘러본 후 "품질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고, 현대화된 선별 시설과 철저한 검수 과정을 확인해 온라인에서도 안심하게 거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이번 방문을 통해 우수 산지를 중심으로 구매 물량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북 교사들, 독감 확진에도 62.7% 출근 강행

## 대체 인력 시스템 부재 지적... 전교조 실태 조사 전국 상위권 기록

전북 지역 교사 10명 중 6명 이상이 독감 등 법정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고도 출근을 강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3일 발표한 '교원 병가 사용 및 대체 인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 지역 교사의 62.7%가 독감 확진 상황에서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울산과 경남,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치다. 해당 조사는 최근 발생한 부천 사립유치

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원 6689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교사들이 감염병에 걸려도 출근을 선택한 주된 이유는 동료 교사에게 업무가 전가되는 미안함(66.4%)과 대체 인력을 구할 수 없어서(64%)로 집계됐다.

관리자의 눈치나 압박 때문이라는 응답도 44.3%를 차지했다. 실제 교육 현장의 대체 인력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교사 부재 시 즉시 투입 가능한 대체 인력 체계가 없다고 답한 비율은 전국 기준 유치원 72.2%, 중학교 72.6%에 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현행 대체 인력 '학생 수 중심의 정원 감축이 현장의 인력



공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교원 정원 산출 기준을 학급 수로 즉각 전환하고 감염병 등에 대비한 추가 정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전교조>

/최성민 기자

## 국립전주박물관, 태권도 시범 공연 선택

내달 총 4차례 무료 운영

국립전주박물관 문화공연 2026년 태권도 시범 공연: K-태권도, 세계를 두드러다'가 5월 도시민들에게 선보여진다.

태권도 시범 공연: K-태권도, 세계를 두드러다' 공연은 5월 2일~3일, 16일~17일 총 4차례 무료로 운영된다.

이번 특별한 태권도 시범 공연에서는 화려한 발차기 및 수려한 격파 기술들로 관객 마음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태권도 시범 공연은 전북특별자치도 태권도협회 전주비전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이 참여한다.

특히 공연은 전북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와 국립전주박물관, 전라북도 전주시가 함께 '2036 전주 하계올림

픽' 유치를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국립전주박물관이 마련한 시범공연은 태권도의 세계화와 문화교류, 화합과 연결의 가치를 표현하고자 '태권도 정신'을 주제로 기획했다.

한국의 정신과 전통에서 시작된 태권도를 보여주는 '전통'에서는 기본 동작과 품새 등이 무대에 보이고 역동성을 보여주는 '기상'은 겨루기와 격파를 시범한다.

K-문화의 상징으로 태권도 '도전'은 군무, 자유 품새, 배틀 형식을 K-POP과 함께 무대형 태권도로 완성해 관객들 앞에서 공연한다.

더불어 화합과 연결의 가치를 표현할 '비상'에서는 모두가 함께 즐기는 글로벌 태권도 진수로 무대에 오른다.

/정소민 기자

# 전주대 비대위, 차종순 이사장 비위 의혹 수사 촉구

## 골프 접대 및 부당 급여 수령... 특별감사 요구

전주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23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법인 차종순 이사장의 부당한 경영 간섭과 비위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차 이사장이 지난 2022년 취임 직후부터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 특정 세력을 형성하고, 이를 앞세워 학교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골프 접대와 금품 수수, 측근 교수에 대한 보직 압력 등 이사장의 각종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지난 2024년 이사회에서 본인의

상근이사로 지정한 뒤 매월 300만 원의 급여를 부당하게 챙겼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차 이사장이 일주일에 한두 번 직원들의 차량으로 광주 자택과 전주를 오가면서 상근이사 명목의 급여를 수령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특별감사와 경찰청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사장과 법인의 비위 의혹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주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전일 이사장들이 세운 민주적 리더십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며 "학교에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세워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의혹과 관련해 전주대 측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성민 기자

## '남원 코리아오픈 국제롤러대회' 성료

아시아를 대표하는 롤러스포츠 종합 국제대회인 '남원 코리아오픈 국제롤러대회'가 열린 경쟁과 함성속에 21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2008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19년 차를 맞은 이번 대회는 중국, 대만, 홍콩, 호주 등 해외선수단 460여 명을 포함, 14개국 1,7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스피드(트랙, 로드), 인라인하키, 인라인프리스타일, 아티스틱 5개 종목으로 진행됐다.

각 국의 선수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남원 선수들의 활약도 돋보였다. 여자 중등부 로드 계주 5,000m에서 이다경, 김세은, 송예담(남원 용성중) 선수가 2위로 수상했고, 여자 초등부(5.6학년) 로드 1바퀴 스피드에서 오지아(남원 월락초) 선수가 3위에 올랐다. 남자 중등부 트랙 계주 3,000m에서는 이영천, 배운빈, 김진영(남원 용성중) 선수가 해외 선수들과의 경쟁에서 당당히 5위에 올랐다.

/남원=정하복 기자

인라인 프리스타일대회는 주최국을 포함한 10개국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홍콩, 태국, 중국 선수들이 우수한 성취를 보여줬다.

특히, 클래식 슬라럼과 배틀 슬라럼 2개 종목에서 3명의 선수가 2관왕을 차지했다. 주니어 남자부에서 카민 인스완(태국), 여자부에서는 리유엣 이리아(홍콩), 시니어 남자부에서 왕유슈안(중국) 선수가 각각 영예를 안았다. 올해 처음 시범종목으로 선보인 아티스틱 대회에서는 인라인 프리스케이팅 종목 고등부 5/6급에서 박주은(경기 사우고등학교 2)이 1위를 차지했다.

남원은 "오랜 역사와 높은 인지도를 가진 지역 대표 국제대회가 우수 대회로써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지역 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글로벌 스포츠 관광도시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익산시>

## 익산시, 25~26일 아쿠아슬론 대회 개최

스포츠 도시 익산에서 철인3종 시즌 개막을 알리는 아쿠아슬론 대회가 열린다. 익산시는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웅포면 익산국제철인3종경기장에서 제5회 익산 챌린지 아쿠아슬론 챔피언십 시리즈 대회 1차전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철인3종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대회로 엘리트 선수와 동호인, 장애인 선수 등 200여

명이 참가해 3차에 걸쳐 기량을 겨룬다. 오는 25~26일 1차전을 시작으로 2차전은 5월 23~24일, 3차전은 9월 19~20일 같은 장소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 체육 인프리를 널리 알리고, 선수단과 방문객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전북현대, 26일 포항과 10라운드 홈경기

팬들 위한 이벤트 '몽성'

전북현대모터스FC가 26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포항 스틸러스를 상대로 하나은행 K리그1 10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현재 전북현대는 3승 3무 3패(승점 12점)로 리그 4위에 올라 있다.

지난 라운드 인천과의 홈경기에서 아쉬운 패배를 당한 만큼, 이번 포항전은 분위기 반전과 선두권 재진입을 위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경기다.

상대인 포항 역시 전북과 승점이 같은 상황이지만, 다득점에서 앞선 전북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다만 최근 10경기 맞대결 성적은 2승 4무 4패로 전북이 다소 열세에 있어, 이번 시즌 첫 맞대결을 통해 전적 관계를

청산하고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각오다.

전북현대에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로 총력전을 예고하며, 홈 팬들 앞에서 반드시 승리를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경기 외에도 풍성한 행사가 팬들을 기다린다.

2024년부터 전북현대를 후원하고 있는 든든한 파트너 '전북신협'이 이번 경기를 맞아 '전북신협 파트너데이'를 개최한다.

동측 광장에서 전북신협 홍보 부스가 운영돼 경기장을 찾은 팬들을 맞이하며, 아프리카에는 전광판 이벤트를 통해 전북신협이 준비한 다양한 경품을 증정해 팬들에게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장정철 기자

## 고창군 '동학농민혁명 판화작품 전시회' 개최

고창군이 동학농민혁명 제132주년 무장기포 기념주간 일환으로 오는 25일부터 5월2일까지 고창 문화의 전당 전시실에서 '1894 우리는 구수내로 간다'를 주제로 농민화가 박흥규 작가의 동학농민혁명 판화 25점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1894년 3월, 청보리 출렁이는 보리밭 사잇길과 황토길에 거대한 민중의 물결이 구수내로 향한 '무장기포'를 주제로 기획했다. 전봉준, 손화중, 최경선, 김덕명, 김수병, 흥남관 등 포와 점, 지역 그리고 신분의 경계를 넘어선 농민

군 지도부가 구수내에서 청보리 밭을 내걸고 포고문을 선포한 역사를 되새긴다. 박흥규 작가는 1959년 전북 부안군 출생으로 홍익대 미대를 졸업하고 직접 농사를 지으며 농민신문 등에서 만평을 연재하는 등 농민문화를 표현하는 화가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10년부터 동학농민혁명과 농민들의 삶과 애환을 주제로한 전시를 다수 개최했으며, 현재까지 한국농정신문 만평을 연재하고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 사고 없는 봄 산행을 위해

# 안전 수칙을 지켜 주세요!

산행전 날씨 확인 등 필요한 정보수집



금지, 위험구역대신 지정된 등산로만 이용



산행에 필요한 장비, 옷 식량 등 준비물 철저히

구조요청시, 국가지번호 활용



타박상, 굶힘 등 사고대비 구급약 준비



### 익산백제문화체험관 “축제 즐기고 백제 체험까지”

익산시가 지역 대표 축제와 백제문화 체험을 연계한 특별 이벤트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시는 백제문화체험관에서 '2026 익산백제 국가유산 야행'과 '2026 익산 서동축제' 기간 방문객을 대상으로 무료 체험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축제와 역사문화 콘텐츠를 연계해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역사문화도시 익산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익산백제 국가유산 야행 또는 서동축제현장에서 얼굴이 나오게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백제문화체험관을 방문하면 된다.

사진을 통해 축제와 체험관 방문객이 동일인임이 확인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자는 △백제 의복 △숙석사신 촬영 △백제 관련 만들기(3종) 중 1가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익산 백제문화체험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익산의 대표 축제를 찾는 방문객들이 보다 폭넓게 지역을 즐길 수 있도록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정읍시, 생활밀착형 평생학습 ‘모두배움터’ 개강

정읍시가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3일부터 ‘모두배움터’ 과정을 개강해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모두배움터는 지역 내 유휴 공간과 생활권 거점을 활용해 맞춤형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평생학습 사업이다.

한지공예, 손뜨개, 종합 미술, 우물벨레, 순가락 난타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편성해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시는 운영 초기부터 10곳의 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 취지와 운영 상황을 설명하고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학습자와 운영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안정적인 정착과 품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현장 점검도 병행한다. 전담 관리자를 배치해 강의 진행 상황과 참여자 만족도, 애로 사항 등을 상시 점검하고 우수 운영 사례는 공유해 전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모두배움터는 시민 중심의 평생학습을 실현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 과정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익산시, 대형 유통매장 중심 과대포장 특별점검 나선다

익산시가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 및 소비자 불편 예방에 나섰다.

익산시는 23일 전북특별자치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대형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과대포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중동 지역 분쟁에 따른 석유화학 원료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고, 불필요한 포장재 사용을 줄여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지난 13일부터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달 8일까지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음식료품·화장품·잡화류·전자제품 등 일상생활에서 소비가 많은 제품으로 △포장비율 포장공간 비율(10~35%) △포장횟수(1~2회 이내)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시는 특별점검 기간 이후에도 폐기물 감축과 환경오염 저감,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과대포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 불법 점거 로컬푸드 어양점 ‘봉인’

### 익산시 “공공재산 무단 훼손 엄단”... 강력 법적 조치 나서

익산시가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무단 점거와 영업이 이어진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에 대해 23일 강제봉인 조치를 단행했다. 시는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봉인 훼손 등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을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선 방침이다.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은 시민의 세금으로 건립된 익산시 소유의 공유재산이다. 기존 운영 주체인 협동조합은 지난 2월 말로 위탁 계약이 종료돼 시설을 시에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채 50일 넘게 무단으로 점유하며 불법 영업을 이어왔다.

시는 그동안 농가 피해와 시민 불편을 고려해 수차례 자진 퇴거를 요청하

며 원만한 해결을 기다려왔다. 하지만 조합 측이 시의 정당한 행정 명령을 끝내 거부함에 따라, 법적 행정의 확립과 공공재산 보호를 위해 이날 시설물 봉인이라는 불가피한 결단을 내렸다.

문제는 행정 집행 이후 발생했다. 조합 측은 시가 적법하게 설치한 봉인 시설물을 강제로 뜯어내고 영업을 강행하는 등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행태를 보였다.

시는 이를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과 함께 시설물 재봉인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동시에 시는 선량한 농가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대책도 가능하다. 기존 어양점 납품 농가들이 안정적인 판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근 농협 직매장과 시 직영점 등으로 출하처를 즉시 연결하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우선 시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은 공

공장소를 중심으로 ‘상생 장터’를 운영 중이다. 익산시청 1층 로비에서는 매주 금요일 ‘금요 상생 장터’가 열려 계란, 채소, 과일 등 17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23일부터는 익산문화체육센터에서 ‘목요 상생 장터’를 새롭게 선보인다.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시민들의 선호도에 따라 판매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29일부터는 하립장터 운영을 위해 협의 중이며, 특히 이곳은 기존 조합의 무단 점유에 참여하지 않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직접 운영을 맡아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어양점은 특정 단체의 사유물이 아닌 시민 모두의 소중한 재산”이라며 “봉인을 훼손하는 등 범죄 행위를 파고드는 행위는 타협 없이 대응하고, 하루빨리 어양점을 시민의 품으로 건강하게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본격화

### 27일부터 취약계층 우선 지급...최대 60만 원 지원

군산시는 중동지역 분쟁에 따른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60만 원,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1인당 50만 원, 그 외 소득 하위 70% 시민에게는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및 지급은 1차(4월 27일~5월 8일)와 2차(5월 18일~7월 3일)로 나눠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1차 기간에 우선 신청할 수 있으며, 미신청 1차 대상자와 소득 하위 70% 시민은 2차 기간에 신청 가능하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또는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모바일 군산사랑상품권은 전용 앱에서, 선불카드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일자리경제과장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 익산시 ‘햇빛소득마을’ 본격 시동

### 민·관 협력 현장지원단, 사업 실행력 강화

익산시가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마을 소득을 창출하고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추진한다.

익산시는 햇빛소득마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가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여해 발생한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주민 참여형 에너지 사업이다. 주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마을공동체 운영에 필

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넘어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을 지향하며, 인구감소지역과 농촌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사업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민관 합동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현장지원단에는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익산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익산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익산지사 등이 참여해 인허가, 계통 연계, 전기 안전, 입지 검토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 지원을 맡고 있다.

아울러 농촌활력과와 경제산업과 등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대상지 발굴, 주민 참여 지원,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협의와 현장 점검을 통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사업의 안정적 정착과 확산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민관이 함께하는 현장지원 체계를 바탕으로 사업 실행력을 높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며 “햇빛소득마을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성공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군산시, 청암산 명소화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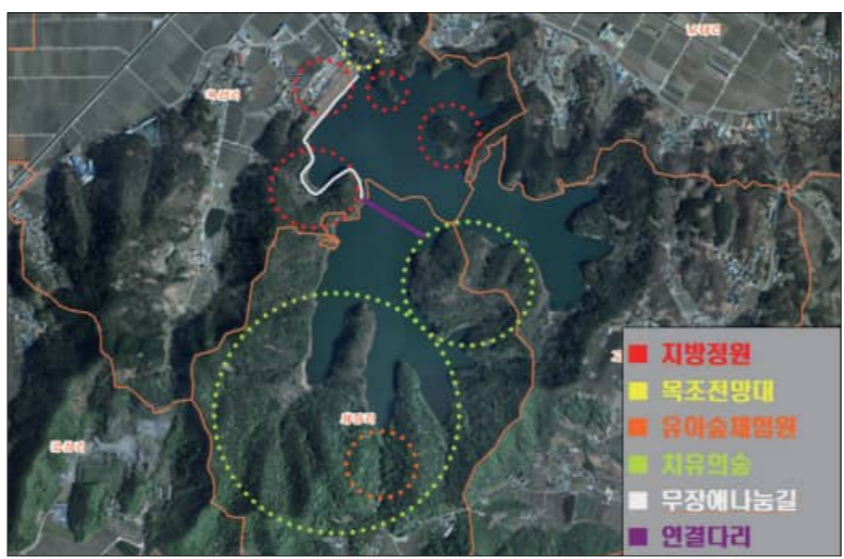
### 치유의숲 등 조성·서부권 생태관광 거점 육성

군산시가 청암산 일원을 자연과 휴식, 관광이 어우러진 생태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청암산 생태관광 명소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청암산은 군산시민은 물론 타 지역 등산객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대표적인 산림휴양 공간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군산저수지 등 우수한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체계적인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가 부족해 잠재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군산시는 청암산의 우수한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지방정원 조성, 치유의 숲 조성, 친환경 목조전망대 설치 등 다양한 산림·생태 관광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청암산을 서부권 대표 생태관광 명소로 육성할 계획이다.



청암산 생태관광 명소화 사업 구역도

<사진=군산시>

특히 지방정원 조성을 통해 계절별 다양한 정원 경관을 연출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휴식·문화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청암산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친환경 목조전망대를 설치해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

하고, 국산 목재 활용을 통해 친환경 목조건축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청암산은 군산의 대표 생태관광 명소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사진=정읍시>

## 정읍시, 오는 6월 ‘취업박람회’ 개최

### 현장 면접·면접비 지원

정읍시가 지역 고용 활성화와 구직자 취업 지원을 위해 오는 6월 23일 정읍체육관에서 ‘2026 상반기 정읍시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 실질적인 연결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면접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구직자는 기업과의 일대일 면접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직접 전달하고, 기업은 현장에서 적합한 인재를 선

발할 수 있다. 행사에는 구인기업을 비롯해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이 참여해 취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진행한다. 공공기관은 채용 절차와 준비사항 등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에게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유관기관은 일자리 정책 홍보와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 등 구직자의 취업 준비를 돕는 다양한 부대 행사도 함께 운영된다. 시는 구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현장 면접 참여자에게 면접비를 지원하는 등 구직 활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구직자와 기업 간 실질적인 연결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지원 정책을 통해 고용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군산시, 아스콘 수급난 속 도로 보수 ‘총력’

### “시민 안전 확보 최우선”

군산시가 최근 중동 사태 등 국제 경제 불안정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난과 전국적인 아스콘 생산 차단 위기 속에서, 선제적 대응을 통해 시민 불편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아스콘 공급이 불투명해진 상황에 대비해 건설과가 자체 보유안 장비를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로 파손(포트홀)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속한 민원 접수와 긴급 조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건설과는 현장 대응 보수

원 13명과 현장 확인 및 민원 접수 담당 7명 등 자체적으로 3개 대응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 상황실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도로 소파 보수 및 인도 정비 요청 등에 대해 신속한 현장 출동과 보수를 실시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아스콘 수급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시 자체 역량을 총동원해 도로 유지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선제적인 긴급 보수와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 정읍시, 농업용 면세유 지원금 조기 지급

### 다음 달 20일까지 신청

정읍시가 국제유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농가를 돕기 위해 ‘2026년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지난 20일부터 시작해 내달 20일까지 진행하고 지원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업은 중동 전쟁의 여파로 불안정한 국제유가가 이어짐에 따라 농가의 경영 부담을 신속하게 완화하기 위해 기존 지급 시기를 앞당겨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집행한다. 상반기 접수분은 대상자 확정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에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농

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면세유 구입 카드를 발급받은 자다. 이번 조기 집행을 통해 지원되는 물량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용한 면세유량의 50%에 해당한다. 유종별로는 리터당 경우 20원, 휘발유 19원, 등유 26원 등 상승액의 40% 수준을 보전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내달 20일까지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농업 경영의 핵심인 면세유 지원금을 적기에 공급해 농가 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 군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 연 35만원... 학습 기회 확대

군산시는 학습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를 넓히고 자아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 35만 원 상당의 평생교육 이용권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정부24 혜택알리미 누리집(plus.gov.kr) 접속 또는 교육지원과 특수학습계(성선면 강변로 459, 발달장애인평생학습관)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단, 평생교육이용권(일반 디지털노인교육부사

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된 75명은 지역 농협에서 채용카드를 발급받아 전국 평생교육기관에서 강좌 수강료와 해당 강좌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강좌 모두 수강 가능하며, 이용 가능 기관은 평생교육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관 상담콜센터 또는 군산시 교육지원과 특수학습계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 김제시 '사회연대경제' 공모 선정

### 총사업비 10억 원 확보... "간막이 없는 행정 실현 기대"

김제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선정으로 시는 총사업비 10억 원(국 5, 도 1.5, 시 3.5)을 확보하며 원도심 활성화와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공모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사회연대경제를 국정과제로 반영하고 전담 조직인 사회연대경제국을 신설한 이후 새롭게 추진하는 핵심 사업으로, 지역문제를 사회연대경제 방식으로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는 향후 최대 3년간 총 30억 원 규모

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김제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학교, 동헌 내야, 성산공원 일대를 연결해 원도심 곳곳에 자리 잡은 협동조합, 마을 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지역 상인들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연대와 상생'으로 되살리는 원도심 순환경제 모델을 제시했다.

해당 일대는 과거 행정과 교육, 경제를 아우르던 지역의 중심지로, 그간 다양한 부서에서 여러 사업을 통해 풍부한 인프라를 축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도심 쇠퇴로 기능이 약화되고 부서별 사업의 개별 추진으로 인해 기대만큼의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짬매'를 기반으로 사업의 기획부터 콘텐츠 개발, 실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사회연대경제 조직 및 유관 부서 사업과 연계하고 협업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짬매'는 '서로 단단히 묶는다'는 의미의 전라도 방언으로 지난해 지역균형발전사업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모델의 우수성을 이미 인정받은 바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별빛 야(夜)시장' 정례화 운영 △아고라 '숨' 광장 내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 △전통시장과 역사자원을 잇는 '헤리티지 원도심 투어' 등 먹거리와 문화, 관광이 결합된 '짬매'로 다잇선(多多善)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연대경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업을 통해 다부처·다부서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간막이 없는 행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며 "지역의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주체가 돼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김제시만의 혁신모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사진=고창군>

## 고창 꽃정원, 튜립 만개 속 상춘객 맞이

### 금영화·꽃양귀비 개화

'고창 꽃정원'에 튜립이 만개하면서 상춘객의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형형색색의 튜립이 절정을 이루면서 방문객들에게 화사한 봄의 정취를 선사하고, 개화 기간 꽃정원 일대에는 가족 단위 관광객과 사진 촬영을 즐기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고창 봄철 대표 관광지로서 자리잡았다.

특히, 고창 꽃정원 사진을 인증하거나 '고창군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한 방문객에게 커피 등 음료를 제공한 '커피피점거장'은 방문객들에게 여유로운 휴식 공간을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지난 18~19일 진행된 거리공연은 봄날의 감성을 더해 현장의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려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였다.

튜립이 지는 시기 이후에도 고창 꽃정원은 봄꽃의 향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5월 중순에는 금영화, 꽃양귀비, 안개꽃, 수레국화 등 다양한 봄꽃이 만개할 것으로 예상돼 또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전망이다.

이회경 고창군 도시디자인과장은 "튜립 개화 시기에 맞춰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다가오는 5월 중순에도 다시 한번 고창 꽃정원을 찾아 봄의 절정을 즐겨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개시

### 오는 27일부터...

### 혼잡 방지 요일제 적용

부안군은 지속되는 고유가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1차 지급은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되며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6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족에는 5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이후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 군민에게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산정해 오는 5월 18일부터 1인당 25만원 원으로 2차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군민 편의를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운영하며 신청 첫 주에는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

신청 첫날인 오는 27일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이 해당된다.

단 오는 5월 1일 금요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 5·0 대상자는 오는 30일 목요일에 출생연도 끝자리 4·9 대상자와 같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부안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오는 8월 31일 자정까지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총 3673개소로 일부 하나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정화영 부안군수 권한대행은 "신청 첫 주에 시행되는 요일제는 군민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신속한 처리를 돕기 위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고유가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군민들에게 이번 지원금이 실질적인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은봉기 기자

# 김제시, 공동급식 지원사업 본격 추진

### 농업 생산성 향상 및 농촌 공동체 활성화 도모

김제시는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가사 및 영농 부담을 덜고,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26년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마을회관 등 공동급식 시설을 갖춘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조리원 인건비와 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번기 여성농업인이 영농활동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은 총 26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며, 각 마을에 공동급식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농번기 가사노동 부담을 줄이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공동 식사 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공동급식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주민 간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기능하며, 농촌 공동체 결속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서 지난 22일부터 사업 현장 점검을 실시해 공동급식 시설의 위생상태와 조리환경을 점검하고, 식중독 및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 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할 계획이다.

이승중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일손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농촌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 계기도 높은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성 있는 농촌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 고창군, 고향사랑기금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 플랫폼 운용 계획 및 지정기부사업 현황 심의

고창군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기금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지난 22일 고향사랑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위원장인 부군수를 포함한 6명 위원이 참석해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 운용 계획, 2026년 고향사랑기금 지정기부사업 추진현황 등 가지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에서 기존 공공플랫폼 중심 운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플랫폼을 활용한 홍보·마케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고창군은 민간플랫폼을 통해 전문 콘텐츠 기반 홍보를 강화해 기부 참여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2026년 지정기부사업인 '고창의 별 육성사업 시즌2', 고창 청소년 드론



고창군은 지난 22일 고향사랑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고창군>

축구단 지원사업은 올해 1월 모금을 시작해 3월 내 목표액 2000만원을 달성하며 조기에 모금을 완료했다. 위원장인 김영식 부군수는 "고창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이 많은 기부자들의 참여로 조기에 목표를 달성했다"

며 "앞으로도 민간플랫폼 도입 등 다양한 홍보와 기금사업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발전과 인재 육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 고창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 구름골 휴양림 등 12개소 방문

김영식 고창군수 권한대행이 21일부터 2일간 군정 주요사업장 12개소를 찾아 현장점검에 나섰다

김영식 권한대행은 아산면에 위치한 구름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산림레포츠파크 조성사업 현장을 둘러보며 공정 추진 상황과 현장 여건을 살폈다. 이어 랍사르 운곡습지 센터 건립사업과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운곡습지의 생태적 가치 보전과 탐방·전시·교육 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고창읍 지역제한형 특화주택

사업과 교촌마을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착공한 고창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고창군 중심을 가로지르는 고창천의 재해예방 기능 강화와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생활밀착형(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해당 시설을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충분히 반영하고, 장애인 우선 이용이 보장되는 체육시설이자 평생학습 기능이 연계된 복합공간으로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아리울오케스트라, 마실축제서 공연

### 내달 4일 '희망 연주'

부안아리울오케스트라는 오는 5월 4일 오후 3시 제13회 부안마실축제 야외 메인무대에 '부안의 내일은 희망이다-나는 반딧불, 함께라서 빛난다'를 주제로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꿈의 오케스트라 자립 거점기관 기획사업 '꿈의 향연'에 선정된 부안아리울오케스트라의 무대로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함께 성장해 온 과정을 담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연했다.

특히 가수 황가람의 대표곡 '나는 반딧불', '미치게 그리워'는 오케스트라와 황가람 협연으로 선보이며 '나의 내일을', '아파트', '붉은 노을' 등 다양한 장르의 곡으로 관객들에게 풍성한 음악을 들려줄 예정이다.

공연은 부안마실축제 야외 메인무대에서 진행돼 지역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으며 단원들이 교육과정에서 쌓아온 음악적 성장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의미 있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부안=은봉기 기자

## 김제시,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자 모집

### 27일부터 5월 15일까지

김제시는 지역사회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2026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대상자를 오는 27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로 구성된 보건소 전문인력이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24시간 맞춤형 건강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대상자로 등록이 완료되면 △스마트 밴드 무상 제공 △3회(최초·중간·최종) 건강검진 △모바일 앱을 통한 1:1 맞춤형 건강, 영양·운동상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우수 참여자에게는 추가적인 건강관리물품

이 인센티브로 제공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65세 미만 김제시 거주자(또는 직장인) 중 건강 위험요인(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거나 관리가 필요한 성인이다. 단 이미 관련질환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약물을 복용중인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홍순화 건강증진과장은 "건강관리 의지는 높아졌으나, 실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을 정착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은봉기 기자

## 김제시 '지구의 날' 기념 기후변화주간 홍보 캠페인

김제시는 제56회 지구의 날(4월 22일)을 맞아 지난 22일 환경과 직원과 그린리더협의회·자연보호협의회 회원 50여명이 참여해 전통시장 일원에서 에너지 절약과 소등행사 참여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김제 전통시장 5일장이 열리는 날에 맞춰 장을 찾은 시민들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구의날 기념 소등행사 참여 독려와 자원안보취기 상향을 고려해 차량 5부제 참여, 대중교통 이용 등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홍보했다.

또한, 벽골제 상류 등 시 상정물과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오후 8시부터 10분간 소등행사를 실시하며, '지구의 날'이 1970년 4월 22일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기름유출 사건을 계기로 지구의 날 선언문을 발표한 이래 세계 각지에서 이날을 기념하고 있는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시 관계자는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보전 및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앞으로도 환경보전을 위해 지속적인 환경 보전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은봉기 기자

## '고창동네점빵' 성내면 첫방문 주민 장비 불만 해소

고창군이 추진하는 이동형 슈퍼마켓 '고창동네점빵'이 마을별 순회방문을 통해 23일부터 오늘까지 성내면을 찾는다.

'고창동네점빵'은 인근에 슈퍼가 없거나 교통이 불편한 마을을 직접 방문해 생필품과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이동형 서비스로, 장비가 어려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내면에서는 23일과 오늘 양일간 첫 운영을 시작으로 매월 셋째주 목요일, 금요일마다 관내 15개 마을을 대상으로 순회 운영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주민들은 생필품과 신선식품 등을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이날 성내면장은 "이번 동네점빵 운영이 어르신들의 장비는 대 체는 불편을 덜어 드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 부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 찾아가는 심리 지원 실시

부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이종석)는 지난 21일 부안심리복지관(관장 박준성)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 지원 서비스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령층의 정서적 안정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전문 상담 인력을 배치해 우울 상태와 스트레스 상태 검사 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어르신들이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히 이번 심리 지원은 지역사회 정신건강 안전망을 강화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센터 관계자는 "찾아가는 심리 지원이 도움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직접 다가가 마음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곳곳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관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의미 있는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큰 호응을 얻었다"며 "앞으로도 센터와 협력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안=은봉기 기자

# 순창군 '고유가 지원금' 민생 안정 총력

### 최대 60만원...소득별 차등 지원 1차 취약층 2차 하위 70% 대상 '찾아가는 신청' 편의 지원 강화

순창군은 중동 지역 전정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2026년 3월 30일 기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이고, 2차 지급 대상은 국민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군민이다. 지급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6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구 50만 원 △국민소득 하위 70% 대상자 25만 원이며, 농촌 인구소멸지역 특

성을 반영해 일반 지역보다 5만 원이 추가 지원된 금액이다. 신청 일정은 1차의 경우 오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7주간 신청을 받는다. 지급된 지원금은 1·2차 모두 2026년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급수단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현장 신청 시 무기한 선불카드를 즉시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청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신청서를 지참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원활한 지급을 위해 군은 조광희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T/F팀을

구성해 대상자 자격 확인, 지급 결정, 콜센터 운영 등 전반적인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군민을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신청하면 담당 직원이 직접 방문해 접수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식당, 카페, 미용실, 의류점, 안경점 등 순창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유흥·사행업종과 온라인 전자상거래, 조세 및 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불편함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사진=완주군>

## 완주군, 작업복 세탁 지원 협약...노동복지 확대

### 4차 협약 체결 지원사업 본격화 작업복 수거세탁배출원스톱

완주군이 '2026년 노동자 작업복 세탁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노동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동자 작업복 세탁 지원사업은 유해 물질이나 찌든 기름때가 묻어 일반 가정에서 세탁하기 어려운 작업복을 전문 세탁소에서 수거, 세탁, 포장한 후 다시 사업장으로 배송해 주는 일괄(원스톱) 서비스다. 대기업과 달리 자체 세탁 시설을 운영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가장 실질적이고 체감도가 높은 복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23일 완주군은 이종훈 군수 권한대행, 강승구 사)전북산학융합원장, 최영서 전주리넨 대표, 권태성 ㈜에이스테크 대표와 함께 4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군은 그동안 지원의 손길이 가장 시급한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참여를 독려했다. 그 결과 올해 10개 영세 중소기업이 사업에 합류하게 됐으며, 이들 기업이 종사하는 현장 노동자들이 유해 물질로부터 가족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복을 입고 일할 수 있게 됐다. 이종훈 군수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체감 노동 복지'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 순창군 순창경찰서, 자동차세 체납 집중 단속

### 고속도 요금수 중심 합동 단속

순창군은 지난 22일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근절을 위해 순창경찰서와 협력해 관내 고속도로 요금소와 주요 도로 일원에서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방세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추진됐으며, 양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단속에는 순창군 재무과와 경계교통과, 순창경찰서 교통관리계 등 총 7명이 참여했으며,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중점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현장에서는 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체납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납부 안내와 함께 현장 징수를 실시하는 한편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도 병행했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안전교육과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경찰 인력을 배치해 안전하고 원활한 단속이 이뤄지도록 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 남원 인재학당 '만인재' 상량식...교육 거점 '속도'

### 총 200억 투입 2027년 개원 목표

남원시가 23일, 지역 교육의 거점이 될 남원 인재학당 '만인재'의 상량식(上樑式)을 거행하며 2027년 개원을 위한 막바지 건립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상량식은 건물의 골조를 완성하고 4층 한옥 지붕의 가장 높은 곳에 대들보를 올리는 행사로, 무사 준공을 기원하는 동시에 남원 교육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 인재 양성의 의지를 다지는 상징적 의미를 담아 진행됐다. 현재 건립 중인 '만인재'는 총사업비 200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3,239㎡,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된다. 내부에

는 강의실, 온라인학습실 등 지역 최고 수준의 교육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상량문에는 '배움은 쌓여 공을 이루고, 사람은 다듬어져 그릇이 된다'는 뜻의 '학성적공 인탁성기(學成積功 人琢成器)'라는 문구가 대들보에 새겨졌다. 상량문 양 끝에는 학생들의 밝은 앞날을 축원하는 '용(龍)·귀(龜)'자와 '등용지문(登庸之門)'을 적어 넣었다. 직접 상량문을 작성한 최경식 남원시장은 "만인재 상량은 남원이 자리산권 교육 거점 도시로 도약하는 상징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군, 의료취약지 비대면 협력진료 역량 강화

### 원격협진 담당자 교육 진행

완주군이 의료 취약지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 취약지 비대면 협력 진료 시범 사업'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며 현장 대응력 강화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최로 사업에 참여하는 보건소 및 유관 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협력 진료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적용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원격협진사업 개요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사항 △서비스 수행 방법 및 사례소개 △원격협진 수행에 따른 시스템 사용 방법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중심으로 진행돼 실무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완주군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은 기존 비봉, 운주, 화산, 동상 4개 지역에 경천면이 추가돼 5개 지역, 7개 보건진료소 지역으로 확대 운영된다. 원격협진 서비스는 보건진료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협력 진료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적용 역량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완주=김명곤기자

# 남원 춘향제, 특산물 먹거리 콘텐츠 대폭 강화

### 소상공인 참여 확대 26개 부스 운영 '연동' 참여 화제성·집객 효과 기대

남원시가 제96회 춘향제를 맞아 지역의 맛과 정체성을 담은 먹거리 콘텐츠를 대폭 강화하고 본격적인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이번 춘향제는 관내 소상공인의 참여를 확대한 총 26개의 먹거리부스를 운영한다. '춘향제만의 차별화된 미식 콘텐츠'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체류 시간 증대를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시는 파프리카, 흑돼지, 백향과, 미꾸라지 등 남원의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전용 메뉴를 사전에 개발해 현장에 적용했다. 지역 식재료를 기반으로 메뉴를 구성해 가격 부담은 낮추고, 맛의 다양성은 높이는 데 주력했다. 주요 메뉴로는 △흑돼지 동파육·마



<사진=남원시>

라면 △흑돼지 미나리곰탕 △파프리카 새우 야채튀김 △추어크림파스타 △백향과 모히또 등이 준비됐다. 이 외에도 흑돼지 타고, 파프리카 산채육전 등 전통과 퓨전을 넘나드는 풍성한 먹거리를 선보여 남녀노소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전국적인 인지도를 보유한 외식 브랜드 '연동'이 스페

셜 부스로 참여해 축제의 상징성과 화제성을 한층 강화한다. 남원시는 지난 17일 먹거리부스 운영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서비스 대응, 가격 준수사항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개발 메뉴의 표준 레시피와 조리방법 교육을 병행해 운영 내실화를 꾀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 혁신당, 완주군의회 출마 선언 "독점 정치 깬다"

### 군의회 특정 정당 독점 구조 비판 "경쟁 통해 완주 행정 혁신"

조국혁신당 완주군의회 예비후보자 와 비례대표 출마예정자들이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특정 정당이 독점에 의한 완주 정치를 혁신하고 군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대안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본격적인 선거 행보에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후보자들은 현재 대한민국이 주거, 교육, 보건, 돌봄이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 보장되는 '사회권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완주가 이미 로컬푸드와 사회적 경제로 저력을 증명한 만큼, 조국혁신당과 함께 대한민국 사회권 선진국

을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완주군 11명 의원 전원이 특정 정당 소속인 현재의 독점 구조를 깨고 건강한 경쟁을 통해 정제된 완주 행정을 혁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완주 '가' 선거구(삼례, 이서) 출마에 나선 윤여연 예비후보는 행정학 박사로서 교육·행정·복지 전문가임을 자임하며 이서와 삼례의 확실한 변화를 약속했다. 윤 예비후보는 삼례 종합복지관을 조기 완공하고, 삼례 재래시장과 청년몰의 상생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또한 삼례 신도시 파출소 신설과 이서 지역 '삼지 켈 AI 인프라' 조성 구상을 제시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이여 '다' 선거구(봉동, 용진)에 출마한 이성원 예비후보는 '3대 민생 약속'으로 완주군 공영버스의 전면 무료화와 봉동을 행정복지센터 읍내 중심지 이전, 주택가 주차난 해결을 위한 자가주차장 공유 및 정비 지원 사업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효진 비례대표 출마에 정자는 주민이 주도하는 '완주형 통합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 내 방치된 유휴 공간들을 전수 조사해 주민 중심의 공유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조국혁신당 후보자들은 "독점은 정제되지 않는 경쟁은 진보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완주=김명곤기자

# 남원시, 중앙부처 방문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

### 국토부·과기부·행안부 잇따라 방문 도시재생·바이오·재난안전 등건의

이성호 남원시 부시장은 23일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해 2027년도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시는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미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관계 부처를 순차적으로 방문했으며, 핵심 사업들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이 부시장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를 방문하여 △윤봉읍 중심지까지 도시재생사업(279억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역특화 재생사업 공모 선정을 건의했다. 특히, 지리산권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산업 거점 조성 과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바이오융합혁신팀과의 면담에서는 △차세대 식물소재소금 기술 및 표준화 개발사업(400억원)에 대해 설명하고, 혁신본부 심의를 통해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해당 사업은 인공지능 기반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역 바이오산업 육성과 미래 먹거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를 방문하여 △하도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396억원), △입암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242억원) 등



<사진=남원시>

재난안전 분야 주요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시는 2020년 섬진강 제방 붕괴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집중호우에 대비한 예방과 주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해 선제적인 재해예방 사업 추진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 완주군 소양면, 두유 전달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

완주군 소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오희홍, 배귀순)가 제지 있는 이름의 '하우 두유 두(How 두유 Do?)'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취약 계층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안부 확인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돌봄 공백으로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어려운 저소득 가정과 홀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12월까지 매월 가정을 방문해 두유를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특히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함께 살피는 등 정서적 돌봄을 병행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배귀순 소양면장은 "이번 '하우 두유 두' 사업이 취약 계층의 건강 증진을 물론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이웃 간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주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맞춤형 복지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오희홍 공동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이웃들에게 꾸준한 관심과 온기를 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소양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 남원시천문과학관, '과학의 달' 체험형 과학문화 행사

남원시천문과학관이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오늘부터 25일까지 이틀간 관람객을 위한 '체험형 과학문화 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야외 체험 부스 중심의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행사 기간 중 과학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 기회를 가진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별자리 머그컵 만들기 △행성 굿즈 배지 만들기 △우주 샌드아트 체험 등 3종의 야외 활동이 마련됐다. 관람객들은 단순한 관람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직접 결과물을 만들며 과학적 호기심을 충족하고, 가족과 소통하며 유대감을 강화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과학관 내 상설 프로그램도 내일 있게 운영된다. 낮에는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밤에는 전문 천체망원경으로 별과 행성을 관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아울러 4D 영상을 감상할 수 있는 천체투영관과 바리스타 로봇이 제공하는 음료·아이스 크림 서비스, 어린이 과학놀이터 등 다양한 시설을 함께 운영해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복합 과학문화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과학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가족과 함께 과학을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 순창군, 제56주년 지구의 날 소등행사 동참

순창군은 지난 22일 제56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오후 8시부터 10분간 진행된 '전국 소등행사'에 동참하며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섰다. 이번 소등행사는 군청을 비롯한 관내 공공기관 15개소가 참여해 건물 내부 조명과 외부 경관 조명을 일제히 소등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공동주택과 일반 가정, 상가 등에서도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졌다. 특히 이번 행사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군 관계자는 "지구의 날 소등행사를 통해 군민들이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에너지 절약과 탄소중립 실현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 임실군 강진면, 면민의 장수상사 선정

강진면은 지난 13일 강진면민의 장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각 분야 수상자로 △공익장 박규식(강서마을) △효열장 이한식(문방마을) △애향장 이성규(갈담마을)씨를 선정했다.

공익장 수상자인 박규식 씨는 전 강서마을 이장으로서 마을 운영과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했으며, 현재 복지회관 부위원장으로 무보수 봉사를 이어가며 주민 편의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힘쓰고 있다.

효열장 수상자인 이한식 씨는 장기간 부모를 정성껏 봉양하며 건강관리와 병원 동행 등 일상 전반을 성실히 수행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애향장 수상자인 이성규 씨는 전 지역발전협의회장과 주민자치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했으며, 현재도 주민자치위원과 게이트볼 회장으로 활동하며 주민 화합과 공동체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한편,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25일 10시 갈담초등학교에서 열리는 제17회 강진면민의 날 대축제에서 진행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 장수읍주민자치위원회, 봄맞이 꽃심기 활동 추진

장수군 장수읍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병길)는 노하읍 일원에서 봄맞이 꽃심기 활동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주민 참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민자치위원 및 관계자 등 15명이 참여해 뜻을 모았다.

이날 식재된 꽃은 데이지, 금잔화, 페튜니아 등 다양한 봄꽃으로 형형색색의 꽃들이 어우러져 노하읍 일대를 화사하게 물들이며 지역 주민들에게 계절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꽃 식재와 주변 환경 정비를 병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했으며 이번 활동을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해 환경을 개선해 마을에 대한 애착과 공동체 유대감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장수=최진수 기자

### 진안군,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공모 선정 위해 총력

진안군이 자체적으로 준비해 온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잠정 보류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 선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1차 선정의 성공을 거두었으나 이듬해 최종 선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군은 전액 군비(200억 원)를 투입해 주민 1인당 연 40만 원을 지급하는 '진안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자체적으로 준비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5개 군 추가 선정'을 공고함에 따라 진안군의 추진 방향이 전환됐다.

정부 시범사업에 선정될 경우, 군민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1인당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화폐(카드형)로 지급받게 된다. 이는 기존 자체 사업(연 40만 원)보다 군민 혜택이 훨씬 크다.

이에 군은 자체 사업 준비를 잠정 보류하고 오는 5월 7일까지 접수하는 정부 추가 공모 선정을 위해 총력을 다 하기로 했다. 정부 공모에 최종 선정될 경우, 중복 수혜 방지 및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준비 중이던 자체 시범사업을 정부 지원사업으로 대체하여 전격 추진할 방침이다.

/진안=전철빈 기자

## 임실N치즈축제, 전국서 인정

### 제6회 대한민국 축제 엑스포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

임실군의 대표축제인 임실N치즈축제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축제 엑스포'에 참가해 베스트 축제 어워드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주관하고 (주)한국전시산업원이 주관해 열린 이번 대한민국 축제 엑스포는 전국 300여개의 대한민국 축제 관련 지자체와 기업 등이 참여해 각 지역의 대표축제와 관광 자원을 소개하는 교류의 장으로 펼쳐졌다.

군은 임실N치즈를 테마로 한 특색있는 디자인으로 홍보관을 운영하며 대표축제인 임실N치즈축제를 비롯해 봄부터 열리는 임실N장미축제, 임실N페스타 등 사계절 이어지는 축제를 홍보하며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임실군의 대표축제인 임실N치즈축제가 '제6회 대한민국 축제 엑스포'에 참가해 베스트 축제 어워드 기초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임실군>

군은 이번 수상을 동력 삼아 오는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임실치즈 테마파크와 임실치즈마을, 임실읍 일원에서 개최될 '2026 임실N치즈축제'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군은 올해 축제를 준비하면서 그동안의 지역 사황을 개선해 나가는 데 주

력하고, 그간 쌓아온 경험 위에서 더욱 차별화되고 매력적인 콘텐츠를 발굴해 색다른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내방객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각종 편의 장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 무주군, 항공우주산업 중심지로!

### 중앙부처 방문 현안 건의 투자선도지구 공모사업 등

현대로템과의 대규모 투자협약 체결을 계기로 항공우주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을 준비 중인 무주군의 행보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주군은 23일 '무주군 항공우주산업 투자선도지구 지정'과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의 현안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기획예산처를 방문했으며, 관계 공무원들과 만나 행정 및 재정적 기반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를 찾은 노창환 무주군수 권한대행 일행은 △항공우주산업 선도기업 유치 기반과 △산업단지 조성 여건,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 △연관 산업 확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무주

군 항공우주산업 투자선도지구 지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모사업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투자선도지구'는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사업으로, 지정 시 각종 규제 특례와 국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예산처 타당성심사과에도 방문해 항공우주산업 투자와 연계된 광역 교통망 확충의 시급성을 언급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자리에서 무주군은 물류 접근성 개선과 기업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무주 무풍~김천 대덕(국도 30호) 도로 시설 개량, △무주 설천 심곡~두길(국도 37호) 도로 시설 개량 등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군민 생활과 통행 안전을

고려해 조속히 추진돼야 하는 현안으로 '무주 안성-적상(국도 19호) 4차로 확장 사업'을 언급했다.

노창환 무주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중앙부처 방문은 공모 및 예타 이전 단계부터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사업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선제 대응"이라며, "투자 기반 시설이 함께 구축될 때 지역 성장의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만큼,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 "무주군은 현대로템 투자유치를 통해 확보한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항공우주와 첨단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라며 "이를 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사회기반시설(SOC) 확충과 연계해 국가 전략산업 거점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최희호 기자

## 장수군, 복합민원 예약제 운영

### 신속·편리한 민원서비스 강화 사전 예약 한 번에 상담·접수

장수군은 복합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민원 예약제'는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따로 방문하지 않고 한 곳에서 민원 절차, 담당부서 확인, 구비서류 안내 등 복잡한 행정 상담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대상 민원은 개발행위허가, 건축 관련 인허가, 산지 관련 인허가 등으로, 본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연중 운영된다. 그간 민원 처리를 위해 관련 부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던 민원인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담당 공무원 부재로 인한 재방문과 민원 처리 지연을 예방해 민원인들의 편의를 높일 전망이다.

특히 복합민원의 경우 민원과 내 복합민원상담실에서 관련 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안내해 보다 체계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상담부터 접수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민원서비스 확대에도 힘쓸 계획이다.

여기에 군은 팀장급 공무원들로 구성된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하고 민원서류 발급 과정에서 민원인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도록 두달 모니터링을 설치

하는 등 민원인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장수군은 민원인의 1회방문으로 민원 처리가 가능한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복합민원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 무주군,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시 택시 지원

### 고령 운전자 이동권 보장 조치

무주군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해 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가진 반납할 경우, '택시 이용권'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택시 이용권'은 운전 면허를 가진 반납한 고령자가 병원 진료료 비롯해 장보기와 외출 등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매월 3회(회당 최대 25,000원) 지급된다. 이번 조치는 고령 운전자의 신체적·인지적 변화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면허 반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 행정 사례로 손꼽힌다.

특히 기존의 일회성 인센티브(무주사랑상품권 20만 원)에 더해 지속적인 교통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책 실

효성을 높였다. 무주군은 고령 운전자 본인은 물론, 군민 전체의 교통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면허 반납 및 운전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으로, 택시 이용권 지원 등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보상 관련 문의는 해당 부서(무주군청 산업경제과 교통행정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무주=최희호 기자

## 장수군, 진드기 기피제 무료 배부

선제적 예방관리로 감염병 차단

장수군보건의료원(원장 노승무)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역 내 읍·면사무소와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소 등 총 25개소에 기피제 무료 배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진드기 활동이 활발한 시기(4월~11월)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기피제를 집중 배부해 자율적인 감염병 예방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예방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장수군은 물품 배부 시 올바른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함께 안내하고, 안내데스크 등 주민 이용이 많은 장소에 홍보물을 상시 비치하고 있다.

또한 △작업 전 밝은색 긴소매와 긴바지 착용, △풀밭에 직접 앉기 금지 △작업복 분리 세탁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을 작업 단계별로 구분해 안내하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 임실군, 상반기 신속집행 점검회의 개최

### 재정집행 속도 제고 총력

임실군은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에 걸쳐 박현숙 부군수 주재로 '2026년 상반기 신속집행 점검회의(2차)'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주요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5억원 이상 주요사업 중 집행률이 저조한 138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 현황과 향후계획을 면밀히 검토했다. 또한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재정집행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소비 위축 대응을 위한 지역

내 자금 순환 촉진, 건설·투자사업 조기 집행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민간 경기 회복 마중물 역할 강화 등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을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전체 대상액의 75.3%를 차지하는 시설비 사업을 중심으로 선급금 추가집행 가능사업을 발굴하고, 집행부진 사유를 분석해 당초 계획된 금액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임실군은 행정안전부 신속집행제도 활용지침에 따라 △선급금 집행 활성화 △긴급입찰 △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 단축 △관급자제 신고지제도 등 관련제도를 적극 활용해 재정집행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 무주반디랜드서 주말 직거래장터 열린다!

오는 25일부터 10월까지 운영

무주군이 오는 25일부터 10월까지 실천면 반디랜드에서 '반딧불 농산물 주말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장터는 반디랜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농산물 구매 기회를 제공하고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는 것으로, 올해는 무풍과 설천면 지역의 12

농가가 참여해 대추와 옥수수, 포도, 사과, 복숭아, 호박, 버섯, 고구마, 들깨, 참깨, 땅콩, 블루베리, 엄나무 순 양배추, 간장, 고추장, 청국장 등 여러 가지 농산물을 판매할 예정이다.

장터 현장에서는 참여 농가들이 직접 농산물을 활용해 만든 먹거리를 선보이며, 직거래 판촉용 시음·시식 행사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최희호 기자

## '2026 임실N페스타' 맞춤형 현장 이벤트 진행

'임실엔TV' 유튜브 구독 연계 스탬프투어·롤렛이벤트 등 풍성

임실군이 오는 5월 1일부터 3일까지 임실 오수의견관광지에서 열리는 제41회 의견문화제와 함께하는 '2026 임실N페스타'에서 반려견과 함께하는 방문객을 위한 맞춤형 현장 이벤트를 선보인다.

군에 따르면 축제기간에 군정 홍보 콘텐츠타워인 홍보담당관은 전국 각지에서 방문하는 반려인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현장 참여형 이벤트와 고향 사랑기부제 홍보부스, 행운의 룰렛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먼저 임실군 공식유튜브 채널 '임실엔TV' 구독을 연계한 스탬프 투어 이벤트도 운영된다. 방문객은 행사장 내 지정부스를 순회하며 스탬프를 적립하고 SNS 구독 인증을 완료하면 선착

순 450명에게 소정의 홍보 물품을 제공 예정이다. 군은 이를 통해 오프라인 축제와 온라인 홍보를 연계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에서는 반려용품과 트래블 세트 등 맞춤형 '행운의 룰렛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SNS 구독 인증 또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에게 룰렛이벤트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 배변봉투 등 산책에 필요한 반려용품과 여행용 세면도구, 린넨·핸드크림 세트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또한 축제기간 운영되는 홍보부스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특별 이벤트가 마련된다.

현장에서 10만원 이상 기부 시 기존 답례품에 더해 임실치즈 핫도그 1팩을 일일 선착순으로 추가 증정해 참여 열기를 높일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완주 화산면 주민자치위원회, 지사협, 합동 환경정비 봉사**

완주군 화산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화산면의 관문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환경정비 및 꽃 심기' 봉사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지역 사회의 화합을 다졌다.

그동안 각자의 영역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힘써온 두 단체는 이번 합동 봉사를 기점으로 화산면의 화합과 지속적인 연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두 단체 회원들은 화산면의 초입이자 '화산의 얼굴'이라 불리는 생활체육공원 앞 도로변에서 그동안 무성히 자랐던 풀들을 제거하는 풀베기(제초) 작업을 마친 후 계절 꽃을 심었다. 주변 환경정비까지 세심하게 마무리하여 화산면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쾌적하고 화사한 첫인상을 선사할 전망이다.

양순희 주민자치위원장은 "우리 면의 얼굴을 가꾸는 일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처음으로 함께하게 되어 무척 뜻깊다"며, "오늘 심는 꽃들이 화산면 화합을 꽃피우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 죽향동지사협, 취약계층 '뽕송뽕송 빨래방' 운영**

남원시 죽향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영권, 공공위원장 이은주)는 2026년 4월부터 관내 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형 세탁물을 세탁해주는 '뽕송뽕송 사랑의 이불 빨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피가 커서 가정 내 세탁이 어렵거나, 신체적·경제적 제약으로 위생 관리에 취약한 가구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직접 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스리블 수거 △세탁 및 건조 △배정된 가구로의 재배달까지 전 과정을 윈스톱으로 진행했다. 단순히 빨래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주거 환경을 살피며 따뜻한 위로와 안부를 전하는 등 실질적인 복지 모니터링 활동도 병행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김제중앙MJF라이온스클럽, 어르신께 식사 제공**

**독거 어르신 생활지원사 초청 노고 격려 함께 담소 나눠 기부봉사활동 꾸준히 실천**

김제시 요촌동 행정복지센터는 23일 김제중앙MJF라이온스클럽(회장 노태형)이 관내 독거 어르신 등 50명을 초청해 식사 나눔 봉사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식사 나눔 봉사활동은 요촌동 관내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특별식이 제공됐으며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생활지원사까지 초청해 노고를 격려하고 함께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제중앙MJF라이온스클럽은 도덕적 국가관과 시민의식의 고취 및 지역사회의 복지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설립 이념에 따라 독거노인 중식지원사업은 연 3회 5년째 지속 중이다.

또한 보일러 및 난방유 기탁, 주거환경사업 및 청소년 응원프로젝트 등 영향력 있는 기부와 봉사활동으로 나눔 사업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노태형 회장은 "이번 나눔 활동을 통해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단순한 식사제공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에게 다 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한 복지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 /김제=온봉기 기자

**익산 남중동 원불교 문화교당, 이웃돕기 성금 기탁**

**지역사회에 사랑 실천**

익산시 남중동에 이웃을 위한 소중한 나눔이 전달됐다. 남중동은 23일 '원불교 문화교당'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남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지역 내 저소득 가정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원불교 문화교당은 오는 28일 대

각개교절을 앞두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을 마련했다. 특히 교도들이 심시일반 정성을 모아 마련한 성금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김법열 교무는 "이번 성금이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소중하게 쓰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밝히는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완주 원두현 마을, 마을 축제 수익금 기탁**

완주군 구이면 원두현 마을(이장 이화순)이 마을 축제 수익금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쾌적하며 따뜻한 공동체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원두현 마을 주민들은 최근 성황리에 막을 내린 '제15회 원두현 왕벚꽃 잔치'의 운영 수익금 중 50만 원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구이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원두현 마을은 매년 봄 왕벚꽃 잔치를 개최하며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축제를 통해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15년째 나눔을 전하고 있다.

구이면 원두현 마을은 아름다운 왕벚꽃 군락지로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다. 특히, 주민들이 자발적인 봉사와 나눔 활동을 활발히 벌이면서 모범적인 마을 공동체로 손꼽히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고창 아산면지사협, 취약계층에 반찬 나눔**

고창군 아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난 22일 홀몸 어르신과 저소득 취약계층 50세대를 방문해 반찬을 전달했다.

'우리동네 냉장고 채우미' 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 가정에 먹거리를 지원하고, 주민의 안부와 생활 실태를 직접 살피는 데 중점을 뒀다.

허영삼 민간위원장은 "반찬 한 가지를 더 드리는 것보다, 누군가를 기꺼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드리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며 "그 마음을 담아 매달 빠짐없이 찾아뵙겠다"고 전했다. 아산면 정재택 면장은 "행정의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아산면 복지의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도 민관 협력 돌봄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써 나갈 방침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군산 월명동지사협, 취약계층에 삼겹살 등 고기 지원**

군산시 월명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상귀정, 민간위원장 임광빈)는 23일 관내 저소득 가정 20가구를 대상으로 삼겹살, 목살, 앞다리살 등 돼지고기 1.5kg을 전달하며 지역 주민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에 나섰다.

이번 지원은 상·하반기 연 2회 진행되는 사업으로, 영양 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체는 지속적인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고기를 전달받은 대상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건강을 챙기기 쉽지 않았는데, 이렇게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임광빈 민간위원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웃들이 더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익산 마동 새마을부녀회, 정성 가득 반찬 나눔 실시**

익산시 마동 주민들이 정성껏 준비한 반찬으로 이웃들과 온정을 나눴다.

마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이수연)는 23일 '사랑의 김치와 밀반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 어려운 이웃들의 입맛을 돋우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부녀회원 27명은 열무김치와 밀반찬을 정성껏 준비해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80여 가정에 직접 전달하고, 안부도 함께 살폈다.

이수연 부녀회장은 "정성이 담긴 열무김치와 밀반찬을 갖게 드시고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웃들을 위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박철순 마동장은 "부녀회에 감사드린다"며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 공동체 형성을 위해 행정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 화재 예방

## 올바른 소화기 사용방법



**소화기**



**불이난 곳으로 소화기를 옮긴 후 안전핀을 뽑아줍니다**



**노즐을 펴서 불이 난 방향으로 고정 합니다**



**손잡이를 힘껏 움켜잡니다**



**노즐을 잡은 상태로 화재가 발생한 곳에 골고루 분사해줍니다**

〈一事一言〉



비정한 정치가 민주주의를 죽인다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정치는 결국 사람을 향해야 한다. 갈등을 조정하고 억울함을 달래며, 최소한의 인간적 예우를 지키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과정에서 벌어지는 참상을 목격하며, 우리는 과연 이 당에 '사람에 대한 예의'가 한 줌이라도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2일, 경선 불공정에 항의하며 12일간 차가운 바다를 지키던 안호영 의원이 끝내 저혈당 쇼크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동료 의원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끝내 단식장을 외면한 정청래 대표와 지도부의 행태는 비정함을 넘어 오만의 극치다.

안호영 의원의 응급실행은 현재 민주당이 처한 도덕적 파산과 '전북 패싱'의 상징적 사건이다. 단식 12일이라는 사투가 이어지는 동안, 당 지도부는 단 한 번의 면담이나 문안조차 없었다. 심지어 안 의원이 실려 나가던 그 날 아침에도 지도부는 현장을 지나치며 경남 통영으로 '선상 최고위원회'를 떠났다. 동료 의원이 사경을 헤매는 농성장 앞을 지나치면서도 손 한 번 잡아주지 않은 당 대표의 모습에 당내에서조차 "자괴감을 느낀다"는 탄식이 터져 나올 정도다. 지도부가 타 지역 유력 인사들의 호소에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유독 전북의 정국만 외면하는 것은, 전북을 언제든 짓밟아도 되는 '정치적 하청업체'로 보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이번 경선 파행의 근본 원인은 당 지도

부가 자초한 '고무줄 잣대'에 있다. 68만 원 대리비를 이유로 현직 지사인 김관영 후보를 단 12시간 만에 '기습 제명'하며 휘두르던 그 칼날은 왜 이원택 후보 앞에서는 무더졌는가. 제3차 식비 대납 의혹이라는 유사하거나 더 중한 혐의가 제기됐음에도 "문제가 없다"며 면죄부를 준 이중잣대가 결국 안 의원을 사지로 몰아 넣었다. "김관영은 문지마 제명, 이원택은 문지마 구명"이라는 비아냥이 전북 정가를 뒤덮고 있는 현실은 민주당 경선의 공정성이 이미 사망했음을 선고하는 조종(弔鐘)이다.

더욱 기막힌 사실은 이러한 여당의 폭거가 야당의 무능이라는 방패막이 뒤에 숨어 유유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는 여야가 팽팽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며 치열하게 경쟁할 때 비로소 발전한다. 하지만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은 제 역할을 망각한 채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엄중한 시기에 장동혁 대표가 감행한 8박 10일의 소독 없는 미국 출장은 야당의 무신경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민심은 차갑게 식어가는 데 지도부만 태평하게 태평양을 건너는 모습에서 국민은 절망한다.

국민의힘의 자중수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리스크가 현실화된 시점에서 '윤어게인'의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과거의 그림자에 매몰되어 있으니, 여론이 야당에게 호의적일 리 만무하다. 야당이 정상적인 견제 세력으로 가능했다면, 여당 지도부가 감히 동

료 의원을 병원으로 보내면서까지 이토록 오만할 수 있었겠는가. 야당의 자멸이 여당에게 오만한 배짱을 심어주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정치 민주주의의 후퇴와 전북도민의 자존심 상처로 돌아오고 있다.

지금 전북 도민들이 느끼는 것은 단순한 지지 후보의 유불리를 떠난 깊은 배신감이다. 선거 때만 되면 '전북의 아들'을 자처하며 압도적인 표를 호소하던 이들이, 정작 전북의 리더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도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중앙의 계파 논리로 난도질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의 병원 이송은 중앙 정치의 횡포에 저항하던 전북 정치권의 처절한 몸부림이다. 이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치하다가 끝내 비정한 침묵으로 일관한 지도부는 스스로 공당의 자격을 포기한 셈이다.

민주당 지도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안 의원의 목소리에 응답하고, 무너진 경선의 정당성을 회복할 결자해지에 나서라. 야당의 무능에 기생해 불투명한 경선을 즐기는 비겁함을 버려야 한다. 불공정 논란을 문개고, 동료의 생명을 외면한 채 단행하는 경선 결과는 결코 도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정치는 신뢰이고, 신뢰는 사람에 대한 예의에서 시작된다. 여야가 날 선 경쟁을 벌일 때 정치는 숨을 쉰다. 전북을 소모품으로 여겨온 그 오만한 태도가 계속된다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민주당의 뿌리부터 흔들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

경선 파행, 무너진 것은 절차의 공정성이다

전북지사 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끝내 '파행'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갈등이나 후보 간 충돌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절차의 공정성이 무너졌다는 데 있다. 경선은 민주주의의 축소판이며, 그 정당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나온다. 그럼에도 이번 경선은 일관되지 않은 판단과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스스로 신뢰를 허물었다.

특정 후보에 대한 초고속 제명과 다른 후보에 대한 무혐의 판단, 그리고 재심 요구의 일축은 '기준이 무엇이었는데'라는 근본적 의문을 남긴다. 같은 사안을 두고도 다른 잣대가 적용됐다면, 이는 공정한 경쟁이라 부르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혼선 속에서도 명확한 설명과 책임

있는 해명이 뒤따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절차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결과 역시 설득력을 잃는다.

경선은 단순히 후보를 가리는 과정이 아니다.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치적 선택의 출발점이다. 특히 전북처럼 특정 정당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지역에서는 경선 자체가 본선과 다름없다. 그렇기에 더욱 투명하고 엄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그 기대를 배반했다.

정치는 경쟁을 통해 발전한다. 하지만 그 경쟁이 공정하지 않다면,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승자의 확정이나 아니라,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다. 그것이 없다면 이번 경선의 후유증은 선거 이후까지 길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오늘의시

별 / 이 외 수

내 영혼이 죽은 채로 술병 속에  
썩고 있을 때  
잠들어 이대로 죽고 싶다

울고 있을 때  
그대 무심히 초겨울 바람 속을 걸어와  
별이 되었다

오늘은 서울에 찾아와 하늘을 보니

하늘에는 자욱한 문명의 먼지

내 별이 교신하는 소리 들리지 않고  
나는 다만 마음에  
점 하나만 찍어 두노니

어느 날 하늘 맑은 땅이 있어  
문득 하늘을 보면  
그 점도 별이 되어 빛날 것이다

시인 약력 : 1946년 경남 함양 출생. 인제대학교를 졸업하고 1964년 춘천교육대학교에 입학했다. 군 제대 후 중퇴했다. 1975년 중편 '훈장'이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정식 등단했다. '겨울 나기', 장편 '들개', '칼', '산목', '벽오금학도' 등을 비롯 예세이 '내 잠속에 비 내리는데', '말더듬이의 겨울수첩' 등을 간행했다. 1990년 '4인의 에로틱 아트전', 1994년 선화(仙畵) 개인전을 개최하는 등 화가로서의 경력도 있다. 소설 '훈장'과 '꿈꾸는 식물', 시집으로 '꽃꽃 술잔 나비', '그리움도 화석이 된다', 에세이 '내 잠 속에 비 내리는데', '날다 타조', '하악하악' 등이 있다.

독자투고

"차 굵고 도망"... 물피도주,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 차된 차량을 굵거나 파손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는 이른바 '물피도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간 물피도주 발생 건수는 4만 5,407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적발 건수는 2만 1,295건으로 절반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물피도주는 단순한 실수나 사소한 접촉 사고로 치부되기 쉽지만, 엄연한 법 위반

행위다.

차량을 운전하다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다면, 반드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떠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장이나 골목길 등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 "티가 나지 않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안기는 무책임한 행위다.

물피도주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식이 중요하다. 운전 중 발생한 작은 접촉이라도 반드시 정차하여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남기는 기

본적인 책임을 지켜야 한다. 이는 법 이전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기도 하다.

아울러 차량 운전자들은 블랙박스를 상시 작동 상태로 유지하고, 주차 시에도 녹화가 가능하도록 설정하는 등 예방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변 환경에 CCTV가 부족한 경우에는 더욱 이러한 대비가 중요하다.

물피도주는 단순한 '도망'이 아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 행위다. 작은 양심의 차이가 누군가에게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작은 사고라도 책임은 필수! 물피도주는 엄연한 범법행위입니다."

군산경찰서 범죄예방계 경위 김현섭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가-00022(발행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                    |                    |                    |
|--------------------|--------------------|--------------------|
| 발행·편집인 송민순         | 편집국장 장정철           | 인쇄인 김은주            |
| 대표전화 282-9601      | 업무국 팩스 282-9604    | 편집국 팩스 283-8800    |
| 전주지사 010-9845-4113 | 군산지국 010-8641-7942 | 무주지국 010-6411-0835 |
| 부안지국 010-7247-3947 | 남원지국 010-2285-3987 | 임실지국 010-8642-6502 |
| 고창지국 010-2258-3734 | 익산지국 010-9560-3075 | 진안지국 010-2433-1721 |
| 완주지국 010-3672-0308 | 김제지국 010-4572-6112 | 장수지국 010-8626-6049 |
| 정읍지국 010-2800-2934 | 순창지국 010-5312-7293 |                    |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전북타임스와 함께  
전북의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JBT 전북타임스 신문

https://www.jeonbuktimes.co.kr 대표전화 282)9601 팩스 282-9604

# 수십 년 경계 분쟁, 김제시 지적재조사가 하나씩 지워간다!

김제시가 수십 년 전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종이지적도를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100년 전 일제강점기 종이 지적도에서 디지털지적을 완성하는 100년 지적 역사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단순한 지적도 정비를 넘어 일제강점기의 잔재를 청산하는 역사적 의미와 함께, 국토 발전의 밑그림이 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핵심 국가 프로젝트다. 시는 지난 2013년 첫 착수 이후 13년동안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며 시민 재산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편집자주)

## “70,209필지, 13년의 기록”

△ 일제강점기 지적도의 한계  
대한민국 국토는 지난 1910년대 일제강점기 당시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작성된 종이지적도에 기반해 관리되고 있다. 당시 측량은 현재 기준으로 매우 조악한 기술 수준으로 이뤄졌으며, 삼각측량의 기준점 오류, 평판측량의 축척 오차, 지형의 임의 단순화 등 구조적 한계가 처음부터 내재돼 있었다. 이후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형 변화, 도시 개발, 도면의 신축·훼손·마모가 누적되면서 실제 토지 경계와 공부(公簿)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 문제는 더욱 심화됐다. 일제가 고여놓은 선 하나가 대를 이어 분쟁의 씨앗이 되어온 셈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왔다. 토지 경계 분쟁, 재산권 침해, 건축허가 지연, 행정 비효율은 물론이고, 경계가 애매한 탓에 맹지(盲地)로 묶여 수십 년간 활용조차 못한 토지도 전국 곳곳에 산재해 있다. 이로 인한 연간 전국 측량 분쟁 비용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적불부합지 문제는 단순히 지도의 오류가 아니다. 내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재산권이 불완전하게 보장되고 있다는 의미이며 정부가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 △ 지적재조사 사업이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낡은 종이 지적도를 정밀 디지털 지적도로 전환하는 전액 국비사업이다.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본격화됐으며, 전국 지적불부합지를 최신 측량 기술로 재측정하고 디지털 지적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사업의 핵심 절차는 크게 네 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사업지구를 지정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내용을 안내한다. 이어 전문 측량팀이 현장에서 정밀 측량을 실시하고, 사전경계 협의를 통해 인접 토지소유자 간 경계를 사전에 조율한다. 이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최종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발생한 경우 감정평가 기반의 조정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경계 분쟁 해소, 토지 이용 효율화, 행정 정확도 향상은 물론 디지털 트윈 국토,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인프라 등 차세대 공간정보 산업의 핵심 데이터 기반이 마련된다.

### △ 김제시 추진 현황-48개 지구, 43% 완료·추진 중

김제시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대표적인 농업 도시로, 드넓은 만경평야를 품고 있는 만큼 토지 관련 행정 수요도 상

당하다. 전체 필지 약 37만 필지 가운데 약 15%인 70,209필지가 지적불부합지로 분류되어 있어,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의 문제를 안고 있다.

김제시는 2013년 지적재조사사업에 착수한 이후 13년간 꾸준히 사업을 확대해 왔다. 현재까지 48개 지구 30,558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했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이는 전체 불부합지의 약 43%에 해당한다. 매년 신규 사업지구를 지정해 꾸준히 불부합지를 줄여온 결과다.

2026년도에는 성덕 석동지구·성덕 상리도하지구·청하 갈산지구·청하 신창연봉지구·순동 농원지구·금구 여전지구 6개 지구, 총 2,208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이 본격 진행 중이다.

이들 지구는 읍·면 소재지와 농촌 마을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토지 경계 불명확으로 인한 주민 간 갈등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곳들이다. 사전경계 협의와 토지소유자 현장 상담을 거쳐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한 최종 경계 확정까지, 2027년 연말 사업 완료를 목표로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 현장 성과-수십 년 경계 분쟁, 지적재조사로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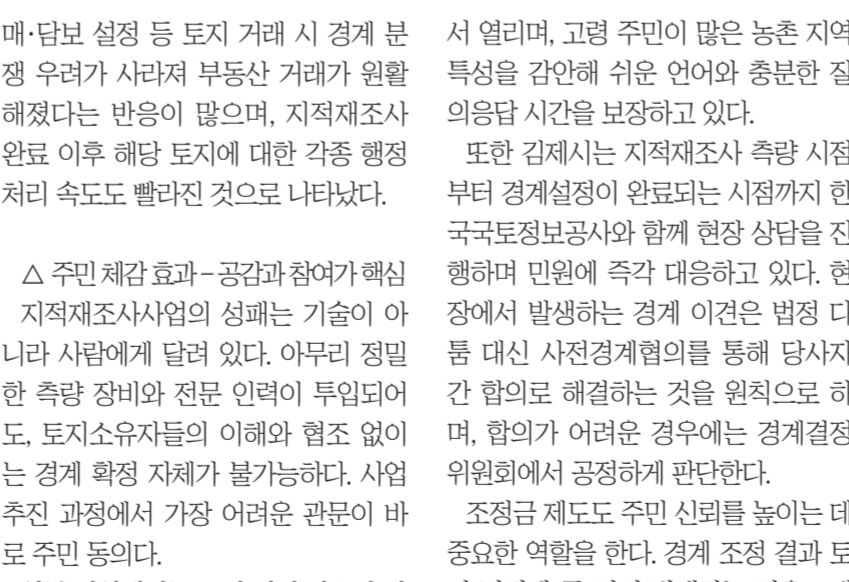
지적재조사사업은 단순한 측량 작업을 넘어 현장에서 경계 갈등을 직접 중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법정 다툼으로 번지기 전 현장에서 해결된 분쟁만 해도 수백 건에 달하며, 완료된 지구의 주민들 사이에서는 체감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장 직접적인 성과는 맹지 해소와 건축물 저축 문제 해결이다. 경계 불명확으로 인해 도로에 접하지 못한 것으로 분류된 맹지, 혹은 건축물이 지적도상 인접 필지를 침범한 것으로 기록된 사례들이 지적재조사를 통해 실제 현황에 맞게 바로잡히면서 건축 행위가 가능해지고 재산 가치가 회복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완료된 요촌5지구 등 현장에서는 당초 경계 분쟁을 겪던 주민들이 새로 확정된 디지털 경계에 만족을 표하고 있다. 담장, 수로, 농로 등 물리적 경계물이 지적도와 어긋나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재조사 측량과 주민 협의를 통해 모두 정리됐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양성화하려고 하는데 주택 안에 국유지 도로가 지나가고 있어 건축물 양성화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해결이 되어서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간 것 같다.” - 진봉면 심명규지구 주민 윤모씨

“수십 년간 애매했던 경계로 이웃과 갈등이 있었는데, 정확한 측량과 중재 덕분에 원만하게 해결됐다.” - 요촌5지구 주민 김모씨  
이 밖에도 완료 지구에서는 상속·매



매·담보 설정 등 토지 거래 시 경계 분쟁 우려가 사라져 부동산 거래가 원활해졌다는 반응이 많으며, 지적재조사 완료 이후 해당 토지에 대한 각종 행정 처리 속도도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 △ 주민 체감 효과-공감과참여가 핵심

지적재조사사업의 성패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 달려 있다. 아무리 정밀한 측량 장비와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도, 토지소유자들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경계 확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관문이 바로 주민 동의다.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 면적 감소나 사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혹은 과거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주민 협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김제시는 측량 착수 전 단계부터 주민설명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여 사업의 목적과 절차, 조정금 산정 방식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력한다. 설명회는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 등 주민들이 친숙하게 모일 수 있는 장소에

서 열리며, 고령 주민이 많은 농촌 지역 특성을 감안해 쉬운 언어와 충분한 질의응답 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김제시는 지적재조사 측량 시점부터 경계설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한국토정보공사와 함께 현장 상담을 진행하며 민원에 즉각 대응하고 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경계 이견은 법정 다툼 대신 사전경계협의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판단한다. 조정금 제도도 주민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계 조정 결과 토지 면적에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2개의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평가를 거쳐 면적 증가분은 조정금을 징수하고 감소분은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행정 이의가 제기된 경우라도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수용성이 높을 편이다.

### △ 향후 계획-잔여 불부합지, 사업 기간 검토와 함께 완주

김제시는 현재 추진 중인 2025년도 6개 지구를 2027년 연말까지 마무리한 뒤, 잔여 불부합지 약 4만 2천여 필지에 대해서도 신규 사업지구를 순차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완료 시점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가 기간 연장(2040년까지) 등을 검토 중인 만큼, 김제시는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불부합지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김제=은봉기 기자